



일본의 읽기 쓰기 역사*

가와무라 하지메¹

〈〈 요약 〉〉

일본의 읽기 쓰기의 역사는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온 5세기 무렵 시작되지만, 복잡한 한자를 일정 수 기억하고 잘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여 생산활동에 바쁜 민중들에게 읽고 쓰는 습관은 거의 퍼지지 않았다. 헤이안 시대인 10세기 전후 한자를 바탕으로 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사용되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민중도 극히 소수였다. 한편, 과거(科擧)가 시행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한문 학습의 장이 한정되고 강고한 신분제 아래서는 문자를 모르는 귀족도 출세할 수 있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가 끝난 17세기 에도막부가 성립하자 문서를 사용하는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지역 지도층이 문자를 습득하도록 유인하였다. 또,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민중에게도 문자가 보급되어 갔다. 그 후 한 세기 정도는 습득한 문자를 사용하여 서적을 읽어내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등 지역 지도층의 문화 수준이 높아져 갔다. 그 학습 장소가 테나라이쥬크(手習塾)이다. 그러나 그 문자 학습 수준은 상당히 낮아서, 도시 이외 지역에 사는 대다수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편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민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산중에 사는 사람 대다수는 식자(識字) 능력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여성은 문자를 학습을 기회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기에 들어가면 학교교육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지역에 따라 식자 능력 차이는 상당하였다. 공업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사역하였고, 그 지역의 식자 능력은 상업 지역보다 낮았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지는 성별 차이도 여전했다.

20세기 후반, 전쟁 후에는 한자를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일본에서 읽고 쓰기

* 원고의 내용과 사진은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에서 다수 전제했다. 전제를 허락해 주신 Rubinger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오도 야스히로(大戸安弘)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구 식자(識字) 연구회의 회원 여러분, 아마노 하루코(天野晴子) 선생님, 우메무라 카요(梅村佳代) 선생님, 오오타 모토코(太田素子) 선생님, 기무라 마사노부(木村政伸) 선생님, 스즈키 리에(鈴木理恵) 선생님, 야쿠와 도모히로(八鍬友広) 선생님의 연구 성과를 많이 인용했다. 아울러, 본 논문을 한글로 옮기는 데 심원섭(전 일본독립대학 교수) 선생과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선생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1. 일본 독립대학 교수, hkawamur0@gmail.com

위해서는 2,000자 정도의 한자를 비롯하여 세 가지 종류의 문자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이 필수이다.

역대 총리조차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나아가, 읽고 쓰는 능력의 차이는 상당하고, 이것이 학력(學力) 문제의 원인이 되어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 근래에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읽고 쓰기라는 문제는 현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제어 : 식자(識字), 비식자(非識字), 서당(手習塾), 가오(花押), 투표(入れ札)

I. 프롤로그 : 읽기 쓰기를 못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다양한 현상들을 새로 발견할 수 있다. 읽기 쓰기 문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일본어의 경우 읽기 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니뭐니 해도 한자 문제다. 한자 문제는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읽기 어려운 한자, 변(扁)과 방(旁)의 조합 문제, 성어(成語), 필순(筆順)에 이르기까지, 한자는 수만 자나 되니 아주 쉽게 문제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퀴즈가 질릴 틈도 없이 계속 방송되는 이유가 있다. 새로운 문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자를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한자 지식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이 뒤엉켜 있는 그 의식이 한자 퀴즈의 존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과 답변을 진행하다가,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한자도 아니어서 총리가 망신을 당했는데, 한자도 못 읽는 이에게 총리를 맡겨도 되겠는가가 되었다. 이렇게 한자를 안다는 것과 교양이나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읽고 쓸 수 없으면 일상 생활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읽기 쓰기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옛날부터 모두가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읽기 쓰기가 불가능했어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일까? 또 어떻게 읽기 쓰기가 가능해진 것일까?

원래 인류 사회 중에는 안데스 문명처럼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던 문명도 있었다. 일본의

쇼문·야요이(繩文·彌生) 시대에도 문자는 없었다. 문자는 말보다 훨씬 나중에 탄생했기 때문에 문자를 갖는다는 것은 문명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 아니었다.

문자를 가짐으로써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던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II. 문자를 읽고 쓴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1. 당신이 배운 한자는 모두 몇 자?

일본인은 많은 한자를 배운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한자를 배울까?

정답은 2,100자 이상이다. 초등학교에서 1,006자, 중학교에서 1,130자를 배우도록 학습 지도 요령에 기재되어 있다. 둘을 합친 2,136자를 상용한자라고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신문과 잡지, 법률 문서 등이 기술된다. 그러므로 2,100자 이상의 한자를 암기하지 못하면 현대 일본어를 만족스럽게 읽을 수 없다.

2. 한국어와 비교해 보기

알파벳은 26자에 불과하므로 한자 학습의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어는 한자 외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사용한다. 히라가나는 한자를 붓글씨체로 만든 것이고 가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다¹⁾. 일본어는 중국어 덕분에 문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어처럼 세 가지 문자를 사용해 단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는 세계에 거의 없다. 일본처럼 중국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한국어는 문법 등이 일본어와 매우 비슷한 언어이지만, 50여 년 전에는 한자와 한글 두 개의 문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름을 제외하면 거의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어를 히라가나만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같은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한국어로는 가능한데 일본어로는 불가능한 이유는 일본어가 음운이 적기 때문이다. 동음이의어가 많은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워 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

1) 예를 들면 加→か(히라가나), 加→カ(가타카나).

3. 한자는 폐지, 로마자만 써라²⁾

현대 일본에서는 대규모 문맹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문부성은 1964년 유네스코 조사 당시 일본에서는 문맹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답변했다. 그 이전의 조사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점령군의 강력한 권유로 실시되었던 일이 있다. 미국에서 온 교육사절단은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제언했는데, 그 정책 중에 한자 폐지, 일본어의 로마자화(化)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본어 읽기 쓰기가 어려워진 것은 한자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군국주의 역시도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조사 대상은 15세부터 64세까지의 남녀 1만 7000명 미만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점령군을 놀라게 했다. 신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였다. 점령군은 일본에서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수가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를 접하고 점령군과는 반대의 의미로 놀랐다고 지적한 사람들도 있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절반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으로, 총 40퍼센트가 신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지금부터 70여 년 이전에는 읽기 쓰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현대에도 읽기 쓰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 공부를 기피한 사람들 외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야간 중학교가 있다. 공립 야간 중학교는 전국에 30여 개 밖에 없으며 또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 중학교는 질병이나 빈곤 등 여러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거나 외국에서 와 일본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다.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200만 명(추정)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망각의 대상이 되어 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4. 일본어를 쓰기 쉽게 해주는 것이 ‘오냐오냐 해주는 것’?

문자 읽기 쓰기가 곤란한 발달 장애도 있다. 난독증이 그것이다. 지적인 문제는 없지만 문자 읽기 쓰기가 곤란한 장애다³⁾. 학년이나 읽기, 쓰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의

2) 로마자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일본어 및 그 표기 규칙. 예를 들어 あ,い,う,え,お는 a,i,u,e,o, 母는 haha.

3) 이 밖에 계산이 곤란한 장애 등이 있다. 이를 총칭하여 학습 장애라 한다.

2 ~ 4 퍼센트 정도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다(1996년 조사).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 읽기 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억압이며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학습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2,100자를 암기하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강요하는 것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누나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압도적 다수인 야마토인(大和人)의 균질성을 강요하는 것은 일본의 단일 민족 신화(와도⁴⁾) 관련하여 비판받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 속에서는 균질성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주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 사회가 문맹자에게 문자를 읽어야 한다는 ‘균질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간 이런 지적은 ‘오냐오냐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⁵⁾. 반대로 이런 사람의 읽을 권리를 ‘독서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가능한 한 한자와 한자 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자치 단체와 연구자의 운동도 있다. 이것도 ‘오냐오냐해 주는 것’일까?

스페인,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기 전에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필리핀이나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스페인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식민지에 스페인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초보 학습 단계가 쉬워야 한다. 현재도 초급 스페인어가 비교적 쉬운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어를 쓰기 쉽게 해주는 것이 ‘오냐오냐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2011년부터 컴퓨터에 대학 입시 문제를 풀게 한 ‘동(東) 로봇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큰 부산물이 나왔다⁶⁾. 전국의 2만 5000명에게 문장의 의미를 알면 지식이 없어도 해답할 수 있을 정도의 선택 문제를 출제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약 15 퍼센트가 주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장 이해의 초보 단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 절반은 추론, 두 문장의 차이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전후 직후, 신문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약 절반이나 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읽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이렇게 보면 읽기 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현대에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읽기 쓰기 문제는 어딘가 먼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4) 일본인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아이누인이나 한반도 유래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

5) 일본에는 특히 아이들에게 ‘오냐오냐해 주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그런 사고방식이 일반화된 것 같다.

6)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프로젝트. 로봇에게 도쿄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5. 문자와 인쇄술 덕분에

문자의 탄생에 의해 언어는 기록·보존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간적 초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록·보존되는 언어는 지배계급의 언어 쪽에 편향되어 있었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까지 문자 교육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지배 계급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문자의 획득은 지배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일반 민중의 말이 문자로 기록·보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민중의 기억은 구전되거나 가요의 형태로 사람들의 내부에 기록되었다.

문자는 기록·보존됨으로써 먼 지역까지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적 초월성의 획득이다. 한번 사용되고 사라져 버리는 음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에 이른다.

한편, 문자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폐해나, 상실된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일까?

서양에서는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크(1398?-1468)의 활판 인쇄 발명에 의해 인쇄 혁명이라 불리는 변화가 시작되어 인쇄물이 비약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성서가 인쇄됨으로써 종교 혁명에도 영향을 끼쳤다. 16 세기에 탄생하는 개신교가 가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고 ‘오직 성서’라는 신앙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성서가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증명으로 간주되어 민중의 읽기 쓰기 능력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6. ‘읽고 쓸 수 있다’란 무엇?

위에서 ‘현대 일본어를 만족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2,100자 이상의 한자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썼는데, 여러 종류의 문자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 일본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식자층(識字層)이라고 하는데, 히라가나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식자층이라 보아도 될까? 한국에서는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식자층이지만, 일본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자는 모르지만 식자층이다, 이런 말에 거부감이 든다면, 어느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초등학교 졸업 정도일까, 중학교 졸업 정도일까. 2100자 전부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문맹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맹층에 포함되어 버릴 것이다.

또한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사람은 식자층일까, 문맹층일까? 컴퓨터의 보급으로 쓸 기회가 적어진 우리는 쓰기 능력이 약화되어,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⁷⁾.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까지를 식자층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대비 식자층의 비율을 산출해내는 시도는 헛수고에 가까운 일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식자층을 연구하여 첫번째 통사(通史)를 출판한 미국의 Richard Rubinger 선생은, 반대 측면, 즉 문맹층 쪽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쓸 수 없다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여서 논의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숫자로 비율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 방식을 기초로 하여 도출된 검토 결과는 나중에 상세하게 보기로 하겠다.

7. 일본어는 거꾸로 뒤집혀 있다

메이지 시대 (1868-1912년) 초기, 근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던 일본은 서양 문물을 신속하고 대담하게 도입하기 위해 필사적이였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을 파견했다. 1872 년 ‘학제(學制)’라는 교육 법령을 공포하고 전국에 소학교 설립을 추진했는데, 추가 조항을 포함하여 200장(章)이 넘는 조문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은, 학교 설립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 유학에 관한 것이었다.

서양 문물을 수입하려면, 서양에서 사용하는 개념들도 수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서양과 동양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 체계는 많이 다르다. 당시 일본은 커녕 동양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많이 있었다. 그때 니시 아마네 (西周, 1829-1897년) 와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년) 등이⁹⁾ 두 글자로 된 한자 숙어를 만들거나 차용하여, 그 개념들을 일본어 속에 많이 도입했다. 예를 들어 철학(哲學)라는 숙어는 니시의 발명이며 speech를 연설¹⁰⁾이라고 번역한 것은 후쿠자와였다. 이때 중시된 것은 한자의 의미였다. 그래서 문자를 보면 대략적인 의미를

7) ‘쓸 수 있지만 읽을 수 없는 경우’란 별로 없다. 일본에서 한자를 배울 때에는 써서 기억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경우 읽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어의 한자 읽기 방식은, 음독과 훈독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한자 중에는 매우 많은 독음 방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쓸 수 있지만 읽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生’은 훈독에 i (kiru), u (mu), ha (eru), nama, ki, o (itachi), ai (niku), ki (ssui), jou, nari (wai), ike (su), (siba) fu 등이, 음독에 syou, sei 등이 있다. 이밖에 지명과 인명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예에 100 개 이상의 읽기 방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8) 에도 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까지의 계몽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 관료. 계몽 단체 메이로크사(明六社) 설립. 저작물은 『百一新論』 『致知啓蒙』 『百學聯環』 등.

9) 에도 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까지의 교육자, 계몽 사상가, 기자. 게이오의숙(慶應義塾)과 메이로크사 등을 설립. 저작물은 『西洋事情』 『學問のすすめ』 『文明論之概略』 『福翁自伝』 등.

10) 원래 불교에서 사용하던 개념이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읽기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시기 번역에 의해 수많은 동음이의어가 태어난 것이다.

일본인은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때 문맥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 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인은 현대 일본어로 대화할 때에는 머릿속에서 음성을 한자로 변환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기본이 음성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일본어는 거꾸로 ‘뒤집혀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음성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의미를 문자로 구별하는 현대 일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정한 수의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2,100자를 넘는 한자 학습의 형태로 우리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음이의어가 별로 많지 않았던 에도 시대까지는 어땠을까?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 확대되어 갔던 것일까?

8. 역사가는 명탐정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중요한 점 하나.

‘역사는 암기물(暗記物)이다’ 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학 시험에 나오는 연호나 사항들을 필사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시험장에서 뱉어내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이래서는 역사가 지겨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렇게 외워대니까, 잔뜩 구겨 넣어 두었던 지식이 1년도 안 지나 사라져 버린다. 역사는 이렇게 쓸모없고 시시한 것이 아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시간적으로 추적하여, 한 줄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추리소설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해 가는 명탐정의 작업처럼 지적이고 즐거운 행위다.

Ⅲ. 에도 시대의 특질을 알자

1. 병농(兵農) 분리의 의미는?

병농 분리는 병사=무사와 농민을 구별하여 농민이 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며 무사는 성곽이 있는 도시에 살고, 농부는 마을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병농 분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

吉, 1537-1598년) 시대 야마시로(山城)의 검지(檢地)에서 시작되었다¹¹⁾. 이것을 다이코 검지(太閤檢地)라 한다. 농지를 측량하고 각 토지의 수확량을 산정한 후, 예상 수확량을 마을마다 검지장(帳)에 등록하여 영주(領主)에게 제출했다. 이 조사를 통해 헤이안 시대 때부터 내려온 복잡한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통일적인 과세 체계를 제정하여 영주에 의한 일원적인 지배체제가 만들어졌다.

1588년 칼 소지 금지령으로 민중을 무장 해제하고 1591년에 신분 통제령을 발표하여 신분이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병농 분리가 완성되었다. 결과 지방 행정은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 유지에게 위임되었다. 그에게 상당한 자치권이 주어졌다.

에도 시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무사 계급은 성곽 주변에서 집단 거주했다. 많은 지역에서는 농촌 지배를 농민 대표에게 위임하는 제도를 만들었다¹²⁾. 이 때문에 농민 대표는 세금 계산과 기록을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작성한 기록은 그들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지면서 소중히 보관되었다.

2. 분주한 농민 대표

농민 대표들이 다뤘던 문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 또 그것을 다루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했던 것일까?

대표의 업무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었다. ① 세금 계산, ② 기록 작성, ③ 촌락 운영, ④ 촌락 대표 업무였다. 각 업무에 어느 정도의 읽기 쓰기 능력이 필요했는가를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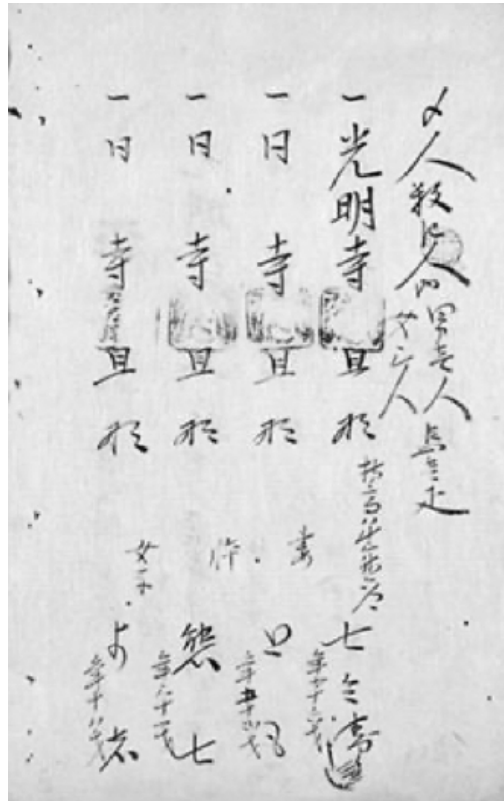
① 세금 계산: 대표가 맡은 가장 큰 책임은 생산을 최대화하고 촌락에 부과된 세를 수합하는 것이다. 세율은 연간 수확량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가 보통이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가을에 세금 할당 공문을 관할 촌락에 보낸다. 대표는 각 농가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세를 할당했다. 당시의 '세금'은 주로 쌀이었는데, 그것을 대표 집에 모아두었다가 거기에서 정부 사무소로 이송했다.

② 기록 작성: 1640년대 중앙 정부는 대표들에게 명령하여 농민의 이름, 사회적 지위, 연령, 가족, 경작지 등을 조사하고 명부를 만들게 했다. 중앙 정부는 그 이전에도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교 사원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지방 정부도 같은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의해 불교 사원은 지배 체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신자 명단이 명부에 기록되었고 해마다

11) 검지(檢地)는 토지와 그 생산량을 계량하고 토지 소유자를 확인한 후 그 세액을 결정한 정책.

12) 무라우케(村請)제도. 농민 대표는 무라야쿠닌(村役人)이라고 한다.

그것은 갱신되었다¹³⁾.



[그림 1] 신자 명단 (宗門人別帳)

또한 중앙 정부는 5명을 한 단위로 묶어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상호 감시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¹⁴⁾. 이 기록도 해마다 장부에 기재되었다¹⁵⁾. 이 장부에는 규정이 열거되어 있는데, 각 농가가 규정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으며 세대주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이 규정은 마을의 서당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¹⁶⁾.

13) 이 명부는 슈몬닌베츠쵸(宗門人別帳)라 한다.

14) 이 제도는 고닌구미(五人組)라 한다.

15) 이 장부는 고닌구미쵸(五人組帳)라 한다.

16) 이 서당은 일본에서는 데나라이쥬쿠(手習塾) 또는 데라코야(寺子屋)라 한다. 조선에는 민중 교육을 위한 학교와 유사한 서당이라는 곳이 10세기부터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 말에는 남아 85명 당 1개꼴로 서당이 있었던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서당이 데나라이쥬쿠와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번역어로 서당을 채택했다.

③ 촌락의 운영: 촌민들은 자체적으로 범절과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촌락의 범절은 마을 회의에서 만들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는, 마을에서 추방하거나 그 집안과의 관계를 끊거나 했다. 이외에도 촌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 계약, 대출에 관한 사무 내용을 기재했다. 촌락을 출입할 때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도 촌락의 대표자였다. 대표는 촌락의 일이나 도로, 교량, 수로의 유지 관리 비용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촌락의 재정에 관한 정보는 장부에 보관되었으며 연말 모임에서 농민들이 이에 대한 감사(監査)를 실시했다.

④ 촌락의 대표: 대표자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공적인 형식으로 탄원서를 기술하는 일은 농부들의 능력 위에 있는 일이었다. 이상과 같이 대표는 촌락의 행정 수장으로서 오늘날 관공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이행하고 있었다.

에도 시대에는 대략 63,000개의 촌락이 있었다. 각 촌락마다 대표가 2, 3 가족이 있었으니, 에도 시대 초기에는 약 3000만 명의 인구 중,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만 명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읽기 쓰기 능력은 에도 시대의 특성과 관련하여, 상층 농민 사이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보급되고 정착되었다.

한편, 세액을 둘러싸고 상층 농민과 일반 농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17 세기의 탄원서 중에는 대표들이 계산한 세액에 의문을 품은 일반 농민이 작성한 것도 있다. 이 다툼은 에도 시대 초기부터 있었으니, 읽고 쓰는 능력은 상층 농민만이 독점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층 농민 이외의 농민 중 일부는 어느 정도의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 같다.

3. 영주의 능력은 어느 정도?

다음으로 무사의 읽기 쓰기 능력을 검토해 보자.

1690년에 쓰여진, 242명의 영주에 관한 평판기가 있다.¹⁷⁾ 중앙 정부측 인물이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에서 영주들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시모츠케(下野) 우츠노미야(宇都宮)의 오키타이라 마사아키(奥平昌章, 1668-1695)라는 한량은, 술독에 빠져 살면서 연예인들과 악명높은 건달들을 불러 종일 술을 마시고 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또 남색과 여색 모두 즐겼으며 읽기 쓰기가 안 되는 무사들을 주위에 두고 시중을 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28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오카야마(岡山)의 영주 이케다 츠나마사(池田綱政, 1638-1714)는 문무가 출중했던 그의 아

17) 도카이료슈키(土芥寇讎記)다. 지방 정부의 영주는 다이묘(大名)라 한다.

버지 미츠마사(光政, 1609-1682)에게서 방대한 양의 서책을 물려받았으나, 바보인 데다가 읽기 쓰기마저 불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오후다이라 마사아키처럼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방탕아이며, 학자의 아들이면서도 그런 ‘불학 문맹 단재(不學 文盲 短才)’는 드물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다. 평판기의 저자들도 어쩌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한테서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가라며 한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약 5퍼센트의 영주가 문맹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자 서적을 읽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히라가나도 읽을 수 없었다는 의미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인 메이지 시대, 1870 년의 야마구치 현(山口縣) 이와쿠니(岩國) 학교의 보고 내용에는 ‘약 8,000명의 무사 중 제법 읽고 쓸 수 있는 인물은 얼마나 있을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천 명 중 5명 미만일 것이다. 5명으로 계산하면 8,000명 중 40명’이라고 써여 있다.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무사는 불과 0.5 퍼센트 이하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도적인 무사 계층의 모든 사람이 읽을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며 그 능력도 균일하지 않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 지위 그리고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4. 학교가 없는 사회!

읽고 쓰기 능력은 현대에는 학교에서 익힐 수 있다. 에도 시대에는 적어도 현대와 같은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는, 모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사카에 가이도쿠도(懷德堂)와 테키쥬쿠(適塾), 나가사키에 나루타키쥬쿠(鳴瀧塾), 교토에 호리카와쥬쿠(堀川塾), 에도에 겐엔쥬쿠(護園塾), 오이타에 간기엔(咸宜園) 등의 사숙(私塾)이 있었고, 서민용 학교, 즉 서당도 있긴 했다¹⁸⁾. 하지만 이곳들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주적인 곳이지 조직적인 공간은 아니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도 자격이 없었고, 수업 내용과 방법도 완전히 자유로웠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다. 언제 와도, 그만둬도 괜찮으며, 학년도 클래스도

18) 가이도쿠도(懷德堂)는 1724년 설립. 테키쥬쿠(適塾)는 1838년에 의사 오가타 코안(緒方洪庵)이 설립. 두 곳 모두 오사카다. 나루타키쥬쿠(鳴瀧塾)는 1824년 독일 의사 P.F.B.von Siebold가 나가사키에서 설립. 호리카와쥬쿠(堀川塾)는 1662년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가 교토에서 설립. 겐엔쥬쿠(護園塾)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가 1709년 에도에서 설립. 간기엔(咸宜園)은 1817년에 히로세 탄소(廣瀬淡窓)가 오이타(大分)에서 설립.

졸업도 없고 정해진 수업료도 없었다. 서당 같은 곳에는 등교 시간도 하교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가르치는 방법도 달랐다. 서당은 일제(一齊)수업이 아니었다. 모든 아이들이 똑바로 앞을 향해 앉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교사가 아이를 불러내어 일대일로 글자를 가르치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 책상에서 자습하거나 노는 형국이었다[그림2]. 교과목도 문자 학습 위주여서, 주판과 노악(能樂)의 가사¹⁹⁾를 가르치는 곳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 문자 학습용 교과서에 나오는 지명과 사물의 이름을 암기시키는 정도였다. 시종 글자를 쓰고 암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2] 와타나베 가산 (渡邊峯山) 「一掃百態圖」 서당 (手習塾)

한편, 무사의 아이들은 한문 읽기부터 시작했다. 신분에 따라 학습 방법과 내용이 달랐다. 조직적인 학교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자를 쓸 수 있게 되었어도 다음에 배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에 중학교에 간다는 식의 ‘학교 사다리’가 없었다.

19) 우타이(謡)라 한다. 또한, 노악(能樂)은 14세기에 성립된 간결미를 특징으로 하는 무대 예술. 고대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사랑받아 온 가무음곡과 춤이 승화된 것.

5. 여자는 배우지 않는다?

서민의 서당이 발달하게 된 것은 지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에도 시대 말까지 서당이 전국으로 퍼졌지만, 그 방식은 균일하지 않았다. 오사카, 에도, 교토 등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시나노 등 특정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면, 사츠마, 에치고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체로 중앙에서 먼 지역일수록 그 수가 적었다. 도시의 서당은 더 규모가 더 컸고,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등교하고 있었다. 농촌 아이들에게는 농사일이 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표 1〉 지역별 서당 취학 남녀비 (남성 100%시)

부현(府縣)		남성 대비 여성 취학 비율
비율이 높은 부현	도쿄	88.7
	교토	74.4
	오사카	53.4
비율이 낮은 부현	아오모리	4.9
	구마모토	4.1
	아키타	2.1

〈표 2〉 신분별 서당 취학 남녀비 (남성 100%시)

지구		남성 대비 여성 취학 비율
도쿄	상인 지구	94.8
	혼재 지구	82.8
	사족(士族) 지구	73.3
	농촌 지구	63.8

취학 관련 성차와 신분의 차이도 취학률에 관한 자료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표 1〉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여성 취학률을 보여준다 (남성 100% 시). 여기에서 에도 시대 말의 도시와 농촌의 여성 취학률 사이에 큰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마찬가지로 에도 서당의 여성 취학률을 보여준다. 거주 지역별 취학률의 차이가 신분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거주자 대부분이 상인인 지역에서는 남성의 취학률에 근접해 있다. 에도의 농촌 지역에서는 취학률이 낮았지만 그래도 에도 시대치고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1〉과 〈표 2〉의 농민의 취학률을 보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극심하여, 에도가 63.8%인 데 비해, 아키타는 겨우 2.1%에 불과하다. 〈표 2〉에서 보듯 신분별 취학률의 차이는 명료하나,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6. 마을 수만큼 서당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서당이 있었을까?

메이지 시대 중반에 정부가 에도 시대의 서당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²⁰⁾. 교사 이름, 개교-폐교 연도, 학생 수, 교과 등을 기록했다. 이것은 거의 전국적인 조사였는데, 에도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의 조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000교를 넘는 서당이 에도 시대에 설립되었다. 개교 수는, 19세기 초기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830년경에 급증하였으며 에도 시대 말기에 피크를 맞이했다. 여기에는 에도 시대 중에 폐교한 곳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학교가 매우 많다는 지적은 나가노현(長野縣)의 조사와 치바현(千葉縣)을 중심으로 한 묘지 조사를 통해 실증되었다[그림3]²¹⁾.



[그림 3] 筆子塚
(木村政伸氏提供)

20) 이 결과는 『일본교육사 자료』라는 자료집에 수록되었다.

21) 묘석에 새겨진 '筆子中'의 문자에 주의. 이것은 '筆子'(제자)의 '中'(그룹)이라는 의미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칭송하기 위해 세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서당이 많이 있었던 에도 시대 말기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었는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당시의 촌락 수는 63,000개인데, 각 마을에 하나씩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는 6만 이상에 이르게 된다. 12,000교는 현대 일본의 초등학교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적어도 현대의 초등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서당이 에도 시대 말기에 존재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IV. 통계 숫자를 조사하자

읽기 쓰기 능력은 어떻게 보급되었을까? 보급된 읽기 쓰기 능력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조사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본다. 하나는 통계적으로 기록된 숫자를 조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일기와 저작물 속에 드러나 있는 역사의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첫번째, 통계적으로 기록된 숫자를 조사하는 작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서양 기독교 권내의 읽기 쓰기 역사 연구는 일본의 연구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현대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교회에서 선서문에 부부가 서명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결혼한 남녀의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된 비율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1. 어떤 자료가 있을까?

이에 필적할 만한 자료, 즉 많은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서명해 놓은 자료가 일본에도 있을까? 일본은 서양과 달리 서명이 있는 자료는 중시된 적이 없지만, 1990년대 들어 연구자들은 세 가지 자료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나는 신자 명단(신자 명부, 신앙 장부)이다²²⁾. 1637년의 시마바라(島原) 아마쿠사(天草) 봉기 후 중양 정부의 기독교 탄압은 특별히 강화되었다. 1639년 중양 정부는 마지막 쇄국령을 통해 포르투갈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1640년 새로운 직책을²³⁾ 만들어 신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현재, 이 기록 전부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나, 전국에 널리 산재해 있다.

신자 명단은 음력 6월 시점에 현지에 거주 중인 모든 사람을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22) 슈몬닌베츠초(宗門人別帳)라 한다.

23) 슈몬아라타메야크(宗門改役)라 한다.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문서 내용을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이름 밑에 개인 표식을 써넣었다. 남이 기입한 이름 밑에 자기 손으로 확인 표식을 해 넣음으로써 각각의 의지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인감에 의한 증명으로 대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신자 명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긴 하나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이의 이름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읽기 쓰기 능력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자료 중의 하나다.

둘째, 농촌에서 작성한 선서문 등이다²⁴⁾. 중세부터 근세 초기까지 농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이나 서약을 했을 때 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결정 내용이나 서약 문서 밑에 서명한 형식의 것이다. 단 이 자료에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셋째, 투표다. 에도 시대 농촌에서 실시한 대표 선출 선거나 도난 사건의 범인 색출 시에 사용된 방법이다. 무기명이어서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투표자 중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전원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에 한정되어 있었고, 여성과 아이들도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가오 (花押), 멋지다!

개인 표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붓으로 쓴 ‘가오’라는 사인이다.



[그림 4] 源頼朝의 가오

24) 기쇼문(起請文)이나 무라오키테(村掟)라 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포기를 맹세하는 자료는 난방키쇼문(南蠻起請文)이라고 한다.



[그림 5] 徳川家康의 가오

가오는 헤이안 시대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 초기에 등장했다. 가오는 교양 수준이 높은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마쿠라 시대(12세기 말부터 14세기 전반)에는, 무사 계급이 권력을 잡으면, 이름 속의 한자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잘라낸 후 이를 합쳐 새로운 하나의 가오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의 가오가 어떤 한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그림4].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2-1616)의 가오는 단순한 두 줄의 평행선 사이에 특수한 디자인을 그려 넣은 것이다[그림5]. 이 방식은 일반 서민에까지 퍼졌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는 가오를 나무 인감에 조각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가오는 원래 의미와 기능을 잃고 소멸되어 버린 것 같다.

붓으로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작은 글씨를 쓸 때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가오는 글씨는 아니지만 오히려 글씨보다 복잡하고 취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문자를 쓰고 읽을 수 있었다고 추정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가오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오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략크오(略押)라는 간단한 부호를 사용했다. 가오는 간략화한 형태로부터 단순한 동그라미 표시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가운데에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림 6]은 1639년 현 시가현(滋賀縣) 이마보리촌(今堀村)에서 작성한 것이다. 촌민들이 4열로 ‘서명’한 것인데, 자기 이름 밑에 가오를 쓴 사람이 4-5명, 다른 사람 대부분은 거의 간단한 부호를 그려넣었다²⁵⁾.

가마쿠라 시대 말기부터 붓대의 밑부분에 먹을 묻혀 날인하는 방법이 나타난다. 붓대 도장(筆軸印)이 그것이다. 이것은 18세기 초까지, 특히 여성과 아이 등 글자를 쓸 수 없는 서민들에게

25) 이마보리소분(今堀惣分) 렌쇼사다메쵸(連署定状)이다.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손톱에 먹을 묻혀 종이에 눌러 찍는 방식도 있었다. 젊은 여성은 인감을 갖고 다니지 않아 붓의 밑부분이나 손톱을 사용했던 것 같다. 이 밖에 손가락 끝에 피를 내어 이로 날인하는 혈판(血判)이나 손도장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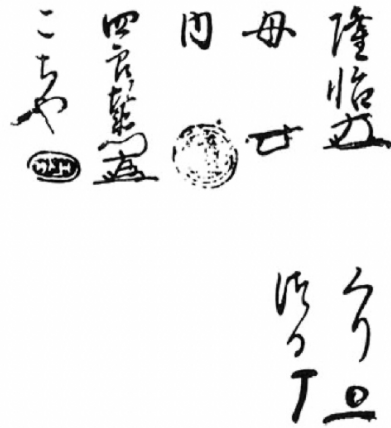


[그림 6] 이마보리촌의 가오와 라크오(略押 1639년)

3. 놀라운 고수준의 능력! : 교토 도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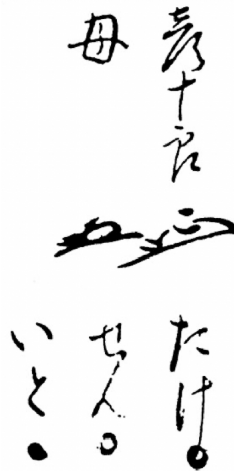
교토 중심부의 자료를 보기로 한다²⁶⁾. 무로마치 시대 때부터 교토 록카쿠쵸(六角町)는 풍요한 상인 거주지였다. 1635년 모든 주민은 기독교인이 아님을 맹세하고 그 증거로 이름 밑에 부호를 붙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상에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 6 세 이상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26) 교토 록카쿠쵸(六角町) 난방키쇼문(南蛮起請文)이다.



[그림 7] 난방키쇼문(南蠻起請文)의 '서명'(1635년)

문서는 세대 당 한 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다 (그림 7). 대부분의 세대에는 종업원이 팔려 있어 하단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가족 관계가 아내, 어머니, 형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성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여성 종업원의 이름은 히라가나로, 남성의 이름은 한자로 씌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맨 처음에 기록되고 뒤이어 그의 가족이 씌어진다. 가족은 근친부터 나열되어 있다. 세대주에 이어 부모, 아내, 형제 자매(연령 순)이다.



[그림 8] 난방키쇼문의 가오와 붓대 도장(筆軸印, 1635년)

수많은 일반 서민들도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 장소에서 자칭을 할 수 없었으며 공식 문서에서도 사용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성인 여성은 이름이 없는 채로 기록되는 것이 보통으로, 처(妻)나 모(母) 혹은 과부 등 가족 관계만 기재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집을 소유한 세대주 26명 중 19명 (73 %)이 가오를 사용하고 있다. 인감을 찍은 2 인의 과부를 모수(母數)에서 제외하면 79 %가 된다. 이 문서를 통해 가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세대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조카, 종업원 그리고 여성도 가오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은 압도적 다수가 인감을 이름의 증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20명의 부인 중 18명(90 %)이, 11명의 어머니 중 8명(73 %)이 인감을 사용하고 딸 14명 중 절반이 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부인 두 명은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붓대 도장(筆軸印)을 찍었다. 어머니 중 2 명은 가오를 썼고, 1 명은 붓으로 랑크오(略押)를 썼는데, 간단한 문자라면 쓸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인감을 사용하지 않은 딸 7명은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었을 것이다. 붓대 도장을 찍었다.

3명의 아버지 중 2명이 가오를, 1명은 인감을 사용했다. 9명의 조카와 숙부 혹은 백부 중 5명이 가오를 사용하고 4명은 인감을 사용했다. 23명의 아들 중 10명 (43%)이 가오를 쓰고 나머지는 인감(30%)와 붓대 도장(21%)을 사용하고 있다. 나이가 든 아들들은 가오 대신 인감 사용으로 전환하는 도중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들 중 1명은 랑크오(略押)를 사용하고 있다. 붓대 도장이 아이들의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계산에서 제외하면, 가오를 쓸 수 있는 아들의 비율은 43%에서 56%로 증가한다. 연령 미상의 조카를 포함한 12명의 성인 남성은 세대주가 아니지만, 그들 중 7명(58%)이 가오를 쓰고 있다. 아들들의 가오 사용률은 56%인데, 상인의 집에서는 아들 세대의 읽기 쓰기 능력이 하락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편, 58%라는 숫자는 가오 사용이 세대주를 넘어 외부의 남성에게로 침투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종업원은 63명이 남성이고 58명이 여성이었다. 63명의 남성 중 27명(43%)이 가오를 사용하여 쓰기 능력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 종업원의 29%는 아이들처럼 붓대 도장을 사용했는데, 이로 보아 글자를 쓰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고 생각된다. 가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집사(奉公人)들로서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실용적인 읽기 쓰기 능력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다. 붓으로 랑크오(略押)를 쓴 20%는, 가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들에게 모종의 읽기 쓰기 능력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이 20%를 가오를 사용한 43%에 더하면, 63%의 남성 종업원들이 읽기 쓰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여성 종업원의 62%가 글자를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여성 종업원 중에는 가오를 사용하는 2명의 유모가 있다. 더 기초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보면,

58명의 여성 종업원 중 12명(21%)이 라크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24% 정도의 여성 종업원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머지 여성 종업원들은 아마도 읽기 쓰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소녀들 중 8명(전체의 14%)은 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읽기 쓰기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와 거의 반대로 되어 있다. 종업원들 중에서는, 주인택 가족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읽기 쓰기 능력이 더 높았다고 생각된다. 소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읽기 쓰기 능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일, 예컨대,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에도 시대 초기에, 일정 수의 여성이, 높은 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가오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림 7-8]은 모두 어머니들의 가오 사용 예다. [그림 8]에서는 세대주와 그의 어머니가 상위 열에서 가오를 사용하고 있다. 하위 열에서는 3명의 젊은 여성 종업원이 붓대 도장을 사용했다.

세입자 세대는 자가(自家) 소유자 세대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하인도 적어 여성 종업원이 1명 또는 2명, 이런 식으로 남성 종업원 수보다 많았다. 세대주는 가오를 쓰는 사람과 인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반반씩 나뉜다. 이것은 자가 소유자층의 가오 사용률보다 30% 정도 적긴 하지만, 상당한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가 소유자의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부인들도 거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어, 16명 중 14명(87%)에 이른다. 세입자의 아들은 가오 사용률이 낮고(33%), 인감 사용률이 높다(58%). 놀랍게도 세입자의 딸들은 자가 소유자 딸보다 인감 사용률이 높고(82%), 붓대 도장 사용률이 낮다(18%). 앞에서 붓대 도장은 글자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한다고 전제했는데, 그렇다면, 왜 세입자 층 딸 쪽이 자가 소유자층 딸보다 더 붓대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자가 소유자층 딸들은 전반적으로 세입자 층 딸들보다 어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료에서 그들의 나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자가 소유자층의 종업원과 세입자 층의 종업원의 가오 사용률은 거의 같다. 세입자층의 남성 종업원의 가오 사용률은 38%로서 자가 소유자층의 남성 종업원의 43%에 가까워, 그들의 능력과 업무의 성질이 이 두 집단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종업원은, 세입자 층의 종업원의 경우 붓대 도장 사용률이 79%이며 자가 소유자층의 경우는 62%다. 이것은 학습 수준과 읽기 쓰기 능력 수준이 세입자 층의 경우는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이 요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입자 층의 여성과 여성종업원들은 아무도 가오를 쓰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근세 일본 초기에 도시의 상인 가계는 놀라운 수준의 높은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대주, 그의 아버지, 아들, 종업원은 가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635년 경에는 높은 수준의 읽기 쓰기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도 가오를 사용하는 사례

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 상인의 가게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의 확대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자를 쓸 수 없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 쪽에 많다. 젊은 여성의 경우가 특히 현저하다. 세입자들은 자가 소유자들보다 읽기 쓰기 능력은 높지는 않았으나 현저하게 낮지도 않았다. 또한 상업 지역의 세입자들은 계산과 장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가 소유자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리가 없었으며,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는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는 신분은 다르지만 읽기 쓰기 능력은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다.

통계적인 기록은 아니나, 교토에서는 이로부터 100년 뒤인 1734년, ‘정부 법령은 모든 교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령서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회람시키고, 문맹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읽어서 들려줘야 한다’는 법령이 내려졌다. 법령을 회람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여성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4. 인감의 석권: 나가사키 히라도

다음에는 지방 도시를 보기로 한다²⁷⁾. 나가사키(長崎)의 히라도마치(平戸町)는 17세기 초기에는 상업 지역이었다. 현대에는 나가사키 만자이마치(萬才町)의 일부이며 변화가인 에도마치(江戸町)에 접해 있다.

여기에 1634년부터 1866년까지 몇 년치 인구 기록이 있다. 교토의 자료처럼 세대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자가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이 구분되어 있다²⁸⁾. 자가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은 별도로 되어 있으며 가족과 종업원도 구별되어 있다. 동일한 한 명의 인물이 문장과 이름을 기록해 나갔으며 그 증명으로서 개별적으로 부첩(符牒, sign) 이 붙어 있다.

이 자료도 자신이 불교도라는 것, 또 기독교인이었지만 불교도로 개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634년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 1659년의 자료에는 어느 절에 몇 명의 주민이 소속되어 있는가가 기재되어 있고 스님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다. 1634년의 자료에는 26명의 세대주가 나열되어 있고 21명(81%)이 가호를 썼다. 이것은 매우 높은 비율인데 교토도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 세입자 세대주는 반반의

27) 현대의 히라도시(平戸市)는 아니다.

28) 나가사키 히라도마치닌베츠쵸(長崎平戸町人別帳).

비율로 가오를 쓰고 있었다. 26명 중 10명, 38 %다.

세대주의 가오 사용 상황은, 크게 보아 교토의 비율과 동일했으나 완전히 대조적인 면도 있다. 집주인과 아들은 가오를 썼으나 아내와 3명의 남성 종업원, 4명의 여성 종업원은 손도장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부호 표기를 했을 뿐이다. 여성이 인감을 사용한 교토의 자료와 달리, 15명 중 인감을 사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3명이 검은 동그라미나 불완전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2명이 손도장을 찍었다. 이 1634년 자료에서는 26명의 세입자 세대를 포함하여, 가오와 인감 양쪽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자택 소유 세대주 2명을 제외하고,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

1659년까지 가오 사용율은 격감하는데, 이것은 읽기 쓰기 능력이 감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감 사용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자가 소유자들의 가오 사용율은 1634 년의 81%에서 17세기 중반에는 44%로 떨어지고 26명 중 불과 2명이었던 인감 사용율이 절반을 넘어선다. 마찬가지로 세입자 세대주의 가오 사용율은 38%에서 16%로 떨어지고 인감 사용율은 31%에서 75%가 되었다. 1702년까지는 자료의 주민 모두가 인감을 사용하게 되었고 가오를 쓰는 일은 없었다. 18 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의 성인 여성은 모두가 인감을 사용하게 되었다.

가오 사용은 아들들에게는 조금 확대되었다. 1634년의 자료에서 17명의 아들 중 6명 (35 %)이 가오를 썼고 나머지는 동그라미 표 또는 손도장 등이었다. 세입자들의 4명의 아들은 모두가 동그라미 표 또는 손도장이다. 49명의 종업원 중 가오를 쓴 사람은 5명(약 10%)이다. 남성 종업원의 절반이 손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히라도의 1634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의 마치(町)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이 대도시보다 소수의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남성 세대주와 그 아들은 대도시의 동일한 신분의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인데도, 성인 여성과 종업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대도시의 동일한 신분의 사람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 히라도의 여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글자를 쓸 수 없음을 나타내는 부호를 기재하고 있다. 1659년까지 예외없이 그녀들은 붓대 도장, 손도장, 동그라미 표시, 검은 동그라미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2세), 종업원, 고령자(어머니, 94세)가 한결같이 같은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호와 글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현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 또 세대주와 그 아들을 제외한 남성 대부분은 글자를 쓸 수 없었다.

읽기 쓰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남성 세대주의 대부분, 나이 든 아들 몇 명, 나이 든 남성 종업원 약간 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가오와 략크오(略押)를 사용한 거주민은 330명 중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5%가 거의, 혹은 완전히 글자를 쓸 수 없었으며 붓대 도장과 손도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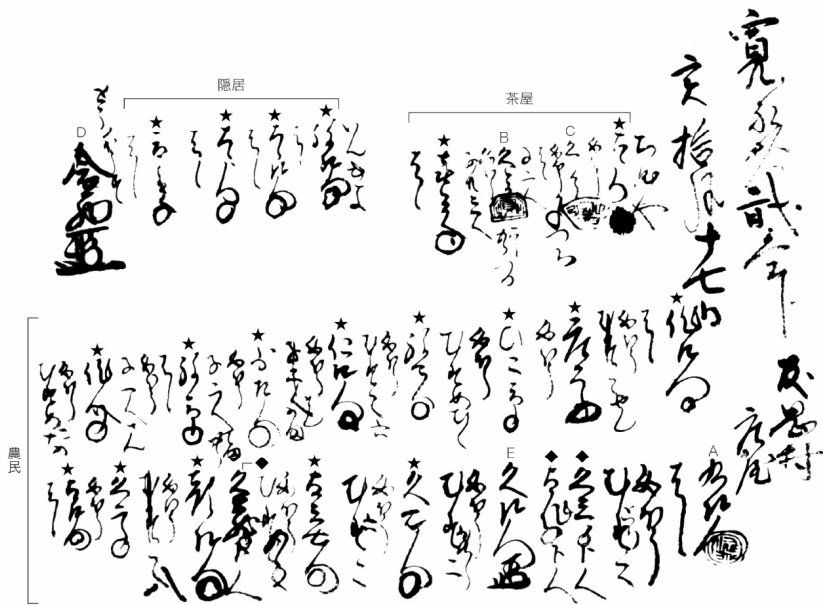
1659년 자료에서는 아들들의 가오를 통해, 가오를 쓰기 시작하는 나이가 14세나 15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오를 쓰기 시작하는 나이는, 세대주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게 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읽기 쓰기 능력이 필요해지는 시기, 즉 성인이 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 같다.

나가사키 히라도 자료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자가 소유자층 남성은 높은 수준의 서명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세입자들과 남성 종업원들은 낮은 수준의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가 소유자들의 수준은 같은 시기의 교토 사람들의 능력과 거의 동일하지만, 히라도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은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히라도의 아들들과 하인들은 거의 가오를 쓰지 않았으며 세입자들의 아들들은 전혀 쓰지 않았다.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쓸 수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대도시 교토에서 확인한 다양한 능력의 양상과는 대조적이다.

5. 도시 근처에 있지만; 도모오카

에도 시대의 농촌을 살펴보기로 한다. 1635년 자료가 교토 근처 도모오카(友岡)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현대에는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의 일부이며 교토 역에서 전철로 금방인 곳인데, 에도 시대에는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가도(街道)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농촌이었고 가도에 서 찻집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이 문서에 도모오카의 주민 71명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9)²⁹⁾.

29) 도모오카무라 난방키쇼몬(友岡村南蠻起請文).



[그림 9] 도모오카 마을 南蛮起請文의 가오와 라크오(1635년)

(그림 중 隱居-은거자, 茶屋-다방, 農民농민)

총 23세대가 있고, 승려 1명이 있는데, 그만 자필로 이름을 썼다. 나머지는 모두 한 명의 동일 인물이 주민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세대주와 종업원은 이름 밑에 부첩을 써넣었고 여성과 아이 들은 써넣지 않았다. 아이 수는 매우 적는데 (19명), 어린 아이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름은 세 그룹으로 나뉘져 있다. 일반 농민, 찻집 주인(비교적 새로 온 주민이기 때문에 문서 오른쪽 위에 기재되어 있다), 은거자(隱居者) (왼쪽 위)이다.

23세대 중 15세대는 일반 농민이 세대주이며 50명의 주민이 나열되어 있다. 4세대, 13 명이 찻집 관련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과부(미혼의 자식이 있었다) 4 세대, 8 명이 은거로 구분되어 있다. 승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농촌 대표와 두 사람의 찻집 세대주가 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 규자에몬(九左衛門)은 타 원형에 무늬가 있고 글자와 이름이 없는, 에도 시대 초기 일반 서민들이 많이 쓰던 인감(A)을 사용하고 있다. 규자에몬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큰 세대였다. 규자에몬, 아내, 어머니, 토리(ト リ)라는 이름의 아들, 종업원 2명, 즉 큐베에(九兵衛)와 요사크(與作)이다. 2 명의 찻집 상인 세대주도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불규칙인 육각형 인 감이며(B), 다른 하나는 부채형 인감(C)이다. 이 마을의 대표와 2 명의 찻집 상인이 인감을 사용

하고 있었던 사실과 그들의 읽기 쓰기 능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으나, 대표의 업무와 상업 활동과의 관련성이 깊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가오를 쓴 사람은, 하나는 승려 넨사이(念西)이며(D), 다른 하나는 규자에몬(九左衛門)이라는 세대주다(E). 승려는 에도 시대 초기 마을의 지식인으로서, 학습 경험을 나타내는 굵고 힘찬 가오를 썼다. 규자에몬은, 대표인 규자에몬 세대의 바로 옆에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도 비슷하므로 대표의 맡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규자에몬의 가오는 마을 안에서의 지위와 비교적 높았던 읽기 쓰기 능력을 보여준다.

다른 세대주 중 19 명(★)은 붓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았다. 그 중 5~6명은 붓대 도장과 구별이 어려울 만큼 간단하다. 종업원 3명도 세대주처럼 이름 밑에 간단한 동그라미를 쳤다(◆). 여성과 아이들은 전혀 표시가 없다. 성인 여성은 이름이 없고 아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등의 가족 관계가 적혀 있었다. 앞에서 본 문서와 동일하다. 아이는 아들이나 딸 등 가족 관계가 적혀 있고 그 옆 또는 밑에 작고 눈에 띄지 않게 이름이 적혀 있다.

가오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승려의 것과 대표의 장남 것, 두 개밖에 없다. 그들이 높은 수준의 읽기 쓰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며, 마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상업 지역의 사람들과 마을 대표는 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세대주인 일반 농민 대부분과 종업원들은 단순한 동그라미 표시만 쓰고 있었다.

6. 투표로 의사를 표현하다

에도 시대의 농촌에서는 가끔 투표를 진행되었다³⁰⁾. 목적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도둑이나 악인을 찾아내는 것, 또 하나는 대표를 뽑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대표를 뽑는 시스템이 몇 개 있었다. 명문가끼리 교대로 맡거나, 세습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선거로 뽑는 곳도 있었다. ‘투표자’는 작은 종이 조각에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다. 각자 별도의 투표 용지에 기입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서 뽑는 경우에는 그들의 읽기 쓰기 능력을 분명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에도 시대의 투표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0) 당시는 이레후다(入れ札)라고 했다.



[그림 10] 투표(1856년)

수루가(駿河国) 미슈쿠촌(御宿村, 현재 静岡県 裾野市)의 1856년과 1857년 대표 선거 자료를 본다. 미슈쿠는 63세대, 보통 크기의 농촌이며 후지산 기슭, 도카이도(東海道) 미시마슈쿠(三島宿) 근처에 있었다.

1856년 2월 6일에 실시된 대표 선거의 투표 용지는 작은 종이봉투 속에 후보자 이름 순서로 들어 있었다. 당선자는 51표 중 34표를 획득한 진베이(甚平)라는 농민이다. 투표 용지에 적힌 진베이라는 철자가 여러 가지여서, 지지자들의 읽기 쓰기 능력의 질이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와 같다.

相役名主甚平様

名主甚平様

名主甚兵衛様

甚平

なのし甚兵衛様

なし甚へい衛

なぬし甚ん兵衛

名主し甚兵衛

名ぬししん兵衛

마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토지 소유 농민들인데 그들은 자필로 썼다. 그 중 한자보다 가나를 많이 사용한, 진베이 찬성표 7표는 읽기 쓰기 능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34표 모두에 한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나누시(名主)³¹⁾의 경우도 진베이의 경우도 철자법 실수가 꽤 있다. 나누시의 경우에는 ‘나노시’ 혹은 ‘나시’라 쓴 오류가 있다. 철자법의 정오(正誤) 여부와 서법의 수준 차이는, 한자를 접할 기회가 많아 붓으로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의 가나에만 의존해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능력의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나라도 쓸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마을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일 것이다. 진베이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투표 용지에는 3표의 기권표와 판독 불가능 글자가 있었다. 글자를 쓸 수 없는 경우였다고 생각된다.

63세대 중 투표 수가 51표라는 것은, 1856년의 대표 선거 투표율이 81 % 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투표하지 않은 사람과 판독 불가능 표를 냈던 사람을 합쳐 보면, 읽기 쓰기 비율은 다소 내려가서 76%가 된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글자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투표 때 우연히 마을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에도 시대 말기, 도카이도(東海道)의 주요 마을 근처의 농촌에서는 토지 소유 농민의 읽기 쓰기 능력은 높다. 또 농민들의 읽기 쓰기 능력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토지 소유 농민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7. 서당에 다니면 읽을 수 있나요?

앞에서, 에도시대에는 현대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서당이 있었다는 것을 기술했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도 기술했다. 이 기록을 집계하여 서당 취학 수로부터 시작하여 서민의 읽기 쓰기 능력을 규명해낼 방법은 없을까? 실은 그런 연구가 192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 연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서당은 자주 만들어지나 마찬가지로 자주 문을 닫는다. 몇 년 동안 운영된 학교도 있으나 몇 주간만 존재했던 학교도 있었다. 때문에 함께 숫자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서당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서당을 다니던 학생 수는 알 수 있지만, 학습의 질이 어떠했는지, 여기에서 배운 것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이런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 통학 빈도도 매우 달랐다. 따라서 취학생 수가, 실제로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가리키는 정확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다.

31) 나누시(名主): 마을 대표의 직함.

8. 18세기의 서당

1737년 에치고(越後國) 무라카미(村上)의 이소베 준켄(磯部順軒)은 교호 시대(享保時代)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서당을 이어받아 취학 기록을 남긴 바 있다. 학생 기록은 1738 년부터 1790년까지 1181명이 있었으며 연평균 23명이 된다. 이 기록을 무라카미(村上)의 아라마치(安良町)와 고마치(小町)의 토지소유자의 직업을 나타내는 주거 지도와 대조하면, 직업별 취학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760년에는 아라마치의 45%, 고마치의 64%가 아이들을 서당에 통학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직업군에는 다다미 장인, 목수, 염색집, 기름집, 포목전, 여관, 술집, 통장수, 도구점, 제지 가게, 양초집, 약국, 제과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³²⁾.

그 중에서도 일용 근로자들의 자식들의 취학률이 가장 낮다. 아라마치에는 일용 근로자 세대가 20세대 있었는데, 서당에 다니는 아이는 4명 뿐이었고, 고마치에서는 일용 근로자 3세대 중 1세대만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도시에서 가장 낮은 신분 23세대 중 5 세대(22 %)가 아이들을 서당에 통학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1772년부터 1822년까지 이세(伊勢國) 츠카모토(塚本, 현재 三重縣 松阪市)에 있었던 주겐도(壽硯堂)의 학생 목록에는 25%(643명 중 160 명)의 아이들이 서당을 졸업한 후 도시에서 고용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서당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아 (165명, 26 %), 그 중 20명 (12 %) 이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나왔다. 남성은 478명 (29 %)이 마을을 나왔다.

이런 아이들은 이세(伊勢)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에도로 갔다. 다른 아이들은 오사카(大阪) 미즈이(三井)에서 일을 했고 교토로 갔다. 이 서당은 미즈이 같은 고용주가 신규로 고용을 해주는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것을 발달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당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가게에 고용될 것을 기대하고 서당에 다녔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9. 19세기의 서당

19 세기의 서당 중에는 매우 높은 취학률을 보여주는 곳도 있다.

오미(近江國) 기타노쇼(北野莊, 현재는 滋賀縣 東近江市)의 서당의 학생 목록이 1814년부터 1873 년까지 분이 남아 있는데, 주민 중 91.4 %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서당에 다니는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출석은 제각각이어서 농한기에 출석하는 정도였다

32) 豊職人, 大工, 紺屋, 道具屋, 紙漉, 蠟燭屋, 藥屋, 菓子屋.

는 것을 알 수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일이 바쁠 때에는 아이들도 직간접으로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선생님도 농사 일에 나서고 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방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서당의 개학 기간은 아이들의 생활에 맞춘,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사이의 기간이었다.

이상 세 곳의 서당 연구는, 지방에 남아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보다 현실태에 입각한 서당 취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V. 기록된 증언을 읽어 보자

지금까지 통계적 기록들을 검토해 왔는데, 서민의 읽기 쓰기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기록을 저작물과 일기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런 자료에 나타난 읽기 쓰기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17세기의 농서 (農書)

농서라는 책이 있다. 농서는 농업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는, 농민에 대한 책이다. 서문은 한문으로 씌어진 것도 있지만 본문은 가나와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미야자키 야스사다(宮崎安貞, 1623-1697)의 책(農業全書)과 오쿠라 나가츠네(大蔵永常, 1768-?)의 책(廣益國産考)이 유명하다. 모든 한자에 가나가 붙어 있어, 가나밖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농서는 그림이 풍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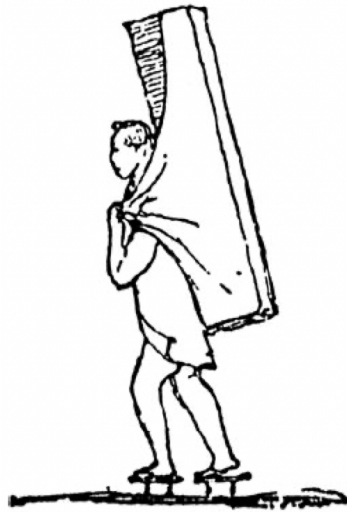
[그림 11] 농업 전서(農業全書)

농서 중 가장 초기에 만들어지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농업전서(農業全書) 다. 1697 년에 출판되었다. 농업 전서는 농업 전반을 취급했는데, 특히 곡물, 야채, 과일, 기타 상품 작물의 재배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알기 쉬운 문장, 어휘와 구문, 가나, 풍부한 그림을 생각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반 농민들도 대상에 넣고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 초서로 찍어진 가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서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에도 시대의 비싼 책

16세기 후반에 시작된 일본의 도시화는 17세기에 폭발적으로 진행되어 18세기 초기에 세계에 서 가장 큰 도시화를 이루게 되었다.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교토와 오사카가 40만 명 전후, 나고야와 가나자와가 10만 명 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인구의 5~7%가 이 도시들에 살고 있었다. 당시의 서양은 2%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정도였다. 에도는 1720년대에 100만 명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상인 계층의 힘과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서 물건의 교환과 사람들간의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마을에서 기초적인 읽기 쓰기 및 계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 탄생했다. 책 판매업 및 대여 서점은 새로운 시장을 얻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출판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큰 도시와 지방도시에 서점이 증가하고 다양한 책이 출판되었다. 17세기 말경에는 만 권 이상의 책이 인쇄되어 700개가 넘는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거나 대여되었다. 출판된 책에는 불교와 유교 서적, 소설, 화집, 시집, 훈육 수첩, 사전, 백과사전, 본초학³³⁾, 여행 일기, 예법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림 12] 서점 점원 스케치

교토에는 17세기 중반에 100개 이상의 서점이 있었으며, 1814년에는 그것이 217개로 증가했고 대략 40만 명의 독자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책은 매우 비쌌다. 소설은 한 달 식비와 맞먹었고, 짠 것도 1주일 식비와 거의 같았다. 때문에 상층 무사 계급과 부유한 상인밖에 책 구입이 불가능하여, 책 대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 책 가격의 10%로 5일간 대여가 가능했다.

서점은 에도에 1808년 656개, 1830년에 800개가 있었다. [그림 12]는 에도 시대 말에 에드워드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5)가 그린 서점 점원의 모습이다.

33) 본초학(本草学): 현대 식물학과 광물학을 합한 형식의 학문으로서, 의술 발전에 기여했다.

3. 18세기의 부자의 일기를 읽어 봅시다

18세기에 마을 대표 계급은 본격적으로 학문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유교와 불교, 시와 의학 등에 관한 책이 농촌에 유입되었다. 대표들은 도시의 서점 및 대여 서점과 협상하여 18세기 초에는 농촌에서도 책을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오사카 교외 가시하라(柏原村, 현재의 大阪府柏原市)의 산다케(三田家)에는 239종, 1054권의 책이 있었다. 쿠사카(日下, 현재의 大阪府東大阪市) 모리가(森家)는 121종, 394 권의 책을 18세기 초기에 비축하고 있었다. 돈다바야시(富田林, 현재의 大阪府富田林市)의 대표 스기야마가(杉山家)에는 72종, 414권의 책이 18세기 중반에 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셋츠(摂津, 현대 大阪府伊丹市) 이타미(伊丹) 야오가(八尾家)는 1730년대에 169종, 939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야오 하지자에몬(八尾八左衛門)의 일기는 1730년부터 1734년까지 기술되어 있다. 하지자에몬은 마을 대표의 아들이었다. 일기에는 1730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야오가에 서적 행상이 자주 왔었다고 적혀 있다. 하지자에몬은 책을 대여하는 동시에 빌리기도 했다. 많은 책을 수집해 놓았던 마을 대표들은 농민에게 책을 자주 빌려주고도 있었다. 오사카의 서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책의 판매나 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사람 이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기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작은 마을의 문화 활동은 책의 유통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한시(漢詩) 모임, 장기, 조루리(浄瑠璃)³⁴⁾ 모임 등 여러 분야의 활동에 접하고 있었다. 마을 대표들 사이에는 학문 애호가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는 참가자가 책을 미리 예습해 놓게끔 되어 있었다. 하지자에몬은 만토쿠사(萬徳寺)에서 실시된 유교 교과서 ‘대학’의 강의에 참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야오가에서 4일간 계속 열린 ‘대학’ 강의에 17~18명의 의사가 열심히 참가했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80% 전후를 차지하는 농민의 자식들은 농민이 되는 것이 봉건 시대의 규칙이었지만, 의사와 승려가 되는 것은 가능했다. 마을의 의사 수는 18세기 이전부터 증가했는데 의사 수는 현대보다 19세기 중반이 더 많았다고 한다. 승려도 의사도 한문책을 읽어야 했다. 마을에는, 의사로 알려져 있지는 않았으나 의학서를 소지하고 약제나 약초 실험을 하는 식의 유력자가 많이 있었다.

이 시절의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은 교토와 오사카 등 대도시 인근 마을 대표들 사이에서

34) 조루리(浄瑠璃): 샤미센(三味線)을 반주 악기로 하여 다유(太夫)가 사장(詞章)을 읊는 음곡·극장 음악.

일어난 현상이며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이었다.

마을 대표들은 할당된 업무를 넘어 사상과 지식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 한편 그들은 도시 지식인과 무사 계층에 접근하였던 만큼 일반 농민과는 괴리되고 있기도 했다.

4. 요시무네가 교육에 개입했다

8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1684-1751)는 매 사냥을 나갔을 때, 에도 근교의 의사이자 서당 교사 요시다 준안(吉田順庵)을 우연히 만났는데, 준안이 법령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포상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요시무네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와 무로 규소(室鳩巢, 1658-1734)에게 중국 명 시대의 ‘육유언의(六諭衍義)’를 번역시켰다. 류큐(琉球, 현재 오키나와)를 경유해 들어와 있던 이 책을 마을 서당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것이 ‘육유언의 대의(六諭衍義大意)’다. 에도의 마치부교(町奉行, 상인거주 지역 행정책임자)인 오오카 다다스케(大岡忠相)에게 서당 교사들을 모아 서당에서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본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일반 서민의 교육에 관해 권력자 측이 관심을 보였던 이른 예다. 풍속을 어지럽히는 책들은 금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18 세기 내내, 서민의 문화와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한 봉건권력의 역할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요시무네 이후에는, 더 이상 서민 교육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1843년의 텐보(天保)개혁 때까지 서민 교육의 도덕적 가치가 검토된 적이 없었다.

5. 19세기, 일반 농민도 공부를 시작하다

19세기에는 농촌에서도 급속히 학습과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국학자(國學者) 미야오이 야스오(宮負定雄, 1797-1858)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경향을 잘 나타낸다. 그는 시모우사 마츠자와(下総国松沢村)의 마을 대표의 아들인데 1826년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 1776-1843)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작품 “민가요술(民家要術)” (1831)에는 면학과 상업적 성공 사이의 강력한 상관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나 공부를 시작하고, 자기 이름, 마을 이름, 나라 안의 지명들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좋지만, 농민과 상인은 한문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1781-1856)는 자조(自助) 정신과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일반 농민의 기초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할 것을 권하고, 마을 지도자층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책을 읽고 싶으면, ‘이로하’³⁵⁾부터 시작하라,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면, 적은 돈부터 모으기 시작하라고 했다.

이 말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골의 서당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아마 곤자에몬(湯山權左衛門, ?-?)은 수루가 다케노시다(駿河國竹之下, 현재 静岡縣小山町) 출신인 손토쿠의 영향을 받아, 마을을 부흥시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립 정신을 갖고 금융 생활을 하며 자제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곤자에몬은 부유한 농민의 자식들에게 기초적인 읽기 쓰기 교육을 함으로써 농촌이 장래에 번영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려 계획하고는, 그를 위해 자신의 마을에 서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전반에는 서당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었다. 시나노 오노(信濃國小野, 현재 長野縣辰野町)의 오자와가(小澤家)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3대에 걸쳐 마을 대표를 지낸 집안이었는데, 교사의 일기가 보관되어 있다.

오자와가는 16세기에 무사 신분을 버리고 귀농을 했다. 18세기 중반부터 교육에 열을 쏟기 시작하여 아이들을 교토에 유학시켜 화가(和歌)를 배우게 하는가 하면, 의학 공부를 시킬 목적으로 나고야(名古屋)에 보내게 된다. 19세기 중반에는 문화와 미(美)의 추구가 마을 대표 계층의 직업에 불가결한 요소로 되어 있었다. 즉 문화는 마을에서 대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민이 기초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요구한 결과, 서당 교사라는 것이 마을 대표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가 되었다.

오자와가의 남성들은 수 세대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서당의 상임(常任) 교사로 인정받는 길을 걷게 된다. 오자와 시산(小澤芝産, 1736-1791)은 1750년에 교사가 되었으나, 상임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는 아직 그 정도의 서당 수요는 없었다. 그의 아들 가메하루(小澤亀春, 1762-1834)는 19세기 초에 농촌 몇 곳에서 교사로 초빙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일반 서민을 가르치는 서당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가메하루의 제자는 40명 정도였는데 아이들은 적어도 여섯 군데나 되는 마을에서 다니고 있었다. 즉 하나의 농촌 마을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아이들밖에 오지 않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 오자와 시산의 손자 가즈노리(小澤和徳, 1796-1869)시대에 이르자 상황이 바뀌어 있었다. 서당 교사라는 직업과 경제적 형편은 단연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1830년대부터 새로운 서당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마을 대표의 자제층을 넘어

35) 이로하(いろは): 한국어의 ‘가나다’처럼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암기하던 가나 문자, 현대에는 ‘아이우에오’.

농촌의 중층과 하층에까지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에도 시대 말기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 서당이 탄생했다. 양잠이 발달한 고즈케 하라노고(上野國原之郷, 현재 群馬縣前橋市)의 후나츠 텐지베에(船津傳次兵衛, 1832-1898)의 서당도 그 중 하나다. 텐지베에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능력들을 발전시키려 했다. 사람마다 달리 갖고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과 개개인의 요구에 주목하는 것은 지금 까지는 없었던 사고 방식이었다.

텐지베에는 간단한 주변 정보라든가 옛날 전승을 전하는 식의 서당 교사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와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교과서로 사용함과 동시에, 대중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모여든 농민들에게 양잠 관련 지식을 대중가요에 맞춰 가르쳤다. 텐지베에는 후에 고마바농학교(駒場農學校, 현재 도쿄 대학 농학부) 교수로 활약하게 된다.

6. 백성 따위는 안 배워도 된다

백성들에게 유포되고 있던 교육적인 사고방식이나 지방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 대해 봉건 권력은 거의 관심이 없었다. 농업 경영 및 윤리적 훈육과 관련된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권장되고 있었으나, 도가 지나치면 경고 대상이 되었다.

많은 권력자들은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독서는 무사 계급에만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나 마을 대표 계층은 예외였다. 18세기 말 권력자는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즉 영세 농민들은 14-15세까지 읽고 쓰고 산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성인이 되면 농업에만 주력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19세기 중반까지는 백성들의 면학 추구는 무관심 영역 속에 넣어 있었다. 이것이 18세기의 특징이었다.

봉건 권력이 그 태도를 바꾼 것은 1830년대에 빈발한 민중 투쟁들의³⁶⁾ 심각한 위협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또 1837년 오오시오 헤이하치로(大鹽平八郎)의 반란의 영향은 심대했다. 봉건 권력은 무사 계층 속에 저속한 대중 문화가 확대되고, 일반 서민에게도 반(反)봉건 권력적 감정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봉건 체제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권력은 대중의 감정을 억압하고 도덕심을 이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서당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36) 하쿠쇼 잇키(百姓一揆)라고 한다.

7. 여성들의 공부는?

1830년대에 활약한 기류(桐生, 현대의 群馬縣桐生市)의 요시다 세이스케(吉田清助, 1794-1852)는 일기 속에서 딸 이토(1824-?)의 교육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의 아들과 딸의 교육은 근처의 여성이 운영하고 있던 서당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아이들은 에도의 국학자(國學者) 학교에 다녔다. 거기에서는 남성에게는 한문, 단가, 국학을 가르치고, 여성에게는 예의범절과 자세 법도만 가르치고 있었다.

읽기 쓰기 능력을 획득한 여성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단가와 하이쿠(俳句)를 짓고 기초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들은 각지를 여행하고 도시 문화를 접했으며 그 시대의 문화,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토와 유사한 성장 과정을 경험한 마츠오 타세코(松尾多勢子, 1811-1894)는 에도 시대 말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타세코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던 시나노 야마모토(信濃山本, 현 長野縣飯田市)의 마을 대표의 딸이며, 집에서 친척으로부터 전래 방식으로 읽기 쓰기를 배웠다. 그리고 1862년 교토 여행을 하여 단가를 배우고 과격한 국학(國學)의 히라타(平田派)파에 공명했다³⁷⁾. 결국 그녀는 복고 운동(復古運動)³⁸⁾ 활동가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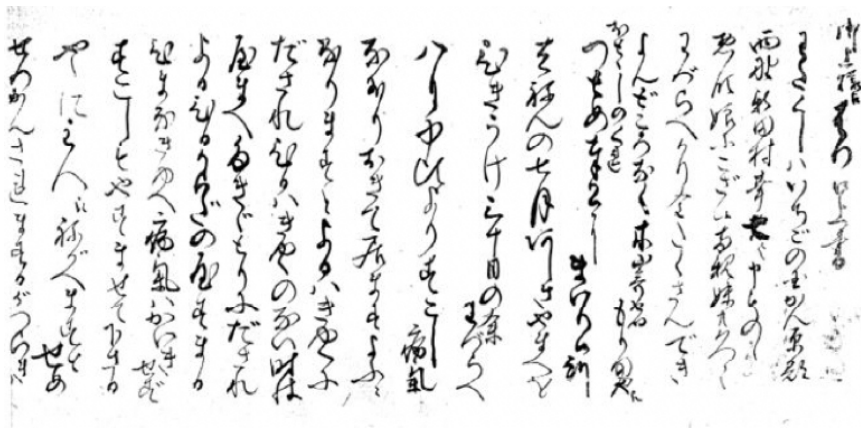
8. 청원 나온 윤락녀

최하층 여성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남아 있었다.

고즈케(上野國) 키사키숙(木崎宿, 현대 群馬縣太田市)의 윤락녀 하츠(?-?)라는 여성의 구상서(口上書)이다[그림13]. 하츠는 에치고(越後) 니시노신덴(西野新田, 현대 新潟縣長岡市)의 소작 농민의 딸이었다. 1840 년에 집을 나와 키사키 숙에서 윤락녀로 8년간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2년 후 병을 얻은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청원했다.

37) 히라타 아즈타네(平田篤胤, 1776-1843) 그룹.

38) 서양 세력을 배제하고, 고대 천황제(天皇制) 시대처럼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운동.



[그림 13] 하츠의 구상서(口上書)

하츠는 키사키숙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읽기 쓰기 능력은 고향에서 배운 것이었을 것이다. 하츠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하츠 농민 여성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읽기 쓰기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자료는 그 절반 정도의 내용이다.

【원문】

御上様江はつ口上書

わたくしはいちごの國かん原郡西野新田村幸七與申ものゝ惣領娘にござ候 兩親妹共久々
わづらへ かり金たくさんでき よんどころなく木崎宿もり□や江おとゝしのくれつとめ奉
公にまいり候所 去ねんの七月あさやまへをひきうけ 三十日の余わづらへ 八月中頃よりす
こし病氣なおり おきて居ますよふ二なりますと よるハきやくにだされ ひるはきやくのな
い時はやまへたきゞとりだされ よるひるからだのやすまるひまなきゆへ病氣はかいきせ
ず すこしもやすませて下さるやうに主人江ねがへますと せめせつかんされますがつら
きゆへ こらへこらへてつとめいたし候所 またまた十一月中頃より病氣おもり しわすにい
りてもなおらず (中略) 漸三月すへになほり候まゝ四月へいりて主人方へ立歸り候所 以の
外いきどほりにて おのれ病中にても内にいれバあげ女郎にだしてもちうやには金壹分ツ、
にもなるのにわがまゝに外へ行てりやうじいたせしハふとゞきしごくなりと まい日まい日
せめせつかんいたされ 誠になんぎしごくいたしまする とうぞやどうぞおじひに林平より
のかしきんにて主人方にてひまをくれおやもとへかへしくれ候やう 主人へ御利かへ仰付ら
れ下され候やうおねがへ申あけます (中略) 國のおやぢハわたしをうるほどのこんきうゆ
へ とてもしごとうちへいで候てねがへをあけます事は なんばくろふにいたしてもぞうやう

もできませぬゆへ とてもわたしをすくふ事ハできませぬ 右のかきつけを おんかみ様へあ
けるには 主人とおなし宿にて右やうありていに申あげ候ては 宿へかへりてとのやうにせ
めらるゝともはかりがたくござ候 御屋しき様へ御引取下され候共 龍舞村弥五兵衛をさし
そへに御めし出し下され外宿へ御さげ下され候とも 両やうのうちねかへ候てから右のねか
へをあげ申べく候

인용문 중 밑줄친 부분은 한자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츠는 지명 등은 간단한 한자로 쓸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한자로 쓰는 말을 가나로 쓰고 있었다. 또한 방언을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³⁹⁾.

9. 어떻게든 생활을 개선하고 싶다

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과 읽기 쓰기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한다.

1275년 기이(紀伊) 아테가와쇼(阿土河庄) 가미(上村, 현 和歌山縣有田川町)의 농민들이 지배자의 악행을 고발한 소장(訴狀)이 있다⁴⁰⁾. 농민 지도자가 가타카나로 기재했다. 총 13조 중 제 4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원문】

……ヲレラカコノムキマカヌモノナラハ、メコトモヲヲイコメ、ミヽヲキリ、ハナヲソ
キ、カミヲキリテアマニナシテ、ナワホタシヲウチテサエナマント候ウテ……

【한자 혼합문】

……をれんらがこの麦蒔かぬものならば、妻子どもを追い籠め、耳を切り、鼻を削ぎ、
髪を切りて尾になして、縄絆を打ちて苛まんと候うて……

【현대문 역】

……너희가 이 보리를 파종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감옥에 집어넣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
내고 머리를 깎아 비구니로 만들어버리고, 포승줄로 묶어 혼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원래 ‘ミヽヲキリ、ハナヲソキ’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내고)라는 부분이 지배자의 폭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당시는 그런 신체적 처벌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39) いちご→えちご (越後), やまへ→やまい (病い), ねがへ→ねがい (願い) 등.

40) 당시의 지배자는 유야사 무네치카(湯浅宗親) (?-?).

이를 배경으로 하여 농민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림 14] 쇼초(正長) 민중 봉기(土一揆)의 비문(碑文)

가타카나와 매우 적은 수의 한자로 씌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가장 먼저 배운 문자가 가타카나였고, 이어 히라가나, 한자의 순으로 배우게 되어 있었다. 이 문장이 가타카나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3세기 후반 농촌의 대표 계층은 가타카나와 적은 수의 한자를 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 내용은 영주의 말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 구체성 있는 농민들의 고발문은 전체 문장의 구성도 좋아 재판에서 힘을 발휘했다.

당시로부터 150 년 정도 지난 후에 나온 또 다른 유명한 문장에 나타나 쇼초(正長) 민중 봉기(土一揆) 비문(碑文)이 있다[그림14].

【원문】

正長元年ヨリサキ者カンヘ四カンカウニヲキメアルヘカラス

【한자 혼합문】

正長元年(1428年)ヨリ先者(=ハ)神戸四カン(=箇)郷ニ負キメアル可カラス

비문에는 이렇게 27자가 새겨져 있었다. 칸베(神戸) 네 지역의, 1428 년 이전의 부채를 없앴다는 투쟁 성과의 기록이다. 어떤 신분의 인물이 이를 돌에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중 봉기 투쟁의 성과를 새겨 후세에 남긴 이 행위는 민중이 문자를 획득하는 의미가 컸다는 사실을 되새겨보게 한다.

13세기부터 17세기 초기까지 농민들은 악정(惡政)에 실력으로 맞서 왔다. 무사 계층이라 하더라도 에도시대 이전에는 평상시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실력 대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또 서민들 사이에 실력 투쟁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병농 분리 정책으로 인해 무장 해제가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소송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런데, 농민만 일방적으로 무력 행사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무사들에게도 ‘인정(仁政)’을 펴도록 요구했다. 에도 정권의 성립은 무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인정(仁政)을 펴지 않는 영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에도 시대 초기까지 실력으로 대치하는 봉기가 주류를 이뤘지만 18세기부터는 농기구로 무장하지 않고, 그 윗선의 지배자에게 고소를 하는 방법을 통해 생활 개선을 꾀하게 되었다. 고소 시에는 고소장이 필요하므로 읽기 쓰기 능력이 민중 투쟁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17세기 농민의 투쟁을 기록한 문장이 서당의 교과서가 되어 전파된 사례가 있었다⁴¹⁾. 이것은 18세기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던 농민의 실력 투쟁 기록이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봉기에 대한 문장을 배움으로써, 농민들은 인정(仁政)을 요구하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킨 것이다.

10. 지배자의 문자를 사용하지 마라

위정자의 ‘인정’과 무력 봉기를 금지하는 조치는 평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이것은 위정자의 은혜(인정)를 기대하는 것이었으므로 위정자의 지배 구조 안에 흡수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모두 거부했던 사상가에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1762)가 있다⁴²⁾. 그는 기아와 흉작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편을 든 사람이었다.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무사 등의 지배 계급이, 어진 정치 운운하면서, 뒤편에서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두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경(直耕)’을 주장했다. 그는 문자 속에 은닉되어 있는 지배의

41) ‘시라이와 메야스(白岩目安)’라고 한다. 야마가타, 니이가타, 이와테, 아키타, 후쿠시마 등의 현에서 발견되었다.

42) 작품에 「自然眞營道」, 「統道眞伝」 등이 있다.

냄새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한자 일반에 통용되고 있었던 의미의 사용을 거부하고, 그 나름으로 독자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한자를 사용하여, 그의 사상을 표현하려고 했다. 지배자의 문자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은 지배자의 사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어지며, 그 지배에 협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고든 사람은 그밖에 없지만, 에도 시대의 지배적인 문자 쓰기 방식인 ‘오이에 류(御家流)’가 싫어 다른 서법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도 있었다⁴³⁾.

19세기에 들어서자 농민의 고소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실력으로 위정자와 대치하는 봉기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마을에서는 서당에서 봉기 고소장으로 교육을 했다는 전승도 있지만, 아직 문서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민중의 투쟁과 읽기 쓰기 능력은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었다.

11. 일본, 굉장하네?

에도 시대 말기에 일본에 건너온 서양인들이 감동한 것들 중 하나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선장 고롭닌(Васи́лий Миха́йлович Головнин, 1776–1831)은 1811년부터 1813년까지 일본에서 2년 3개월 간 수감 생활을 겪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교육을 갖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일본은 가장 교육이 진보된 국가다. 일본에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과 국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날드 맥도날드(Ronald MacDonald, 1824–1894)도 1848년 일본에 표착하여 1849년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홋카이도에 붙잡혀 있었다. “일본의 모든 사람—상류층에서 최하층까지, 남성도 여성도 모두—종이와 붓과 먹물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읽기 쓰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층 계급 사람들도 쓰는 습관이 있고 편지를 통한 의사 전달은 우리 나라보다 더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오일렌부르크(Friedrich Albrecht Graf zu Eulenburg, 1815–1881)는 에도 시대 말에 프로이센 정부의 일원으로 일본에 왔다. “모든 계급의 일본인이 여가 시간에 독서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서점에서는 일본, 중국 책뿐만 아니라, 지리, 민속, 천문, 기타 자연과학 각 부문, 의학, 전술, 병서 등등의 서양 번역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서점은 어느 거리에나 있습니다. 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서,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책이 읽혀지고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43) 지배적인 방식은 오이에류(御家流)라 한다. 보통 사용하는 문장을 붓으로 쓸 때 초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오이에류도 그중 하나다.

에메 안베루(Aimé Humbert-Droz, 1819-1900)는 스위스의 전권대사였는데, 1863년부터 1864년까지 일본에 체류했다. “일본인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받는 이익을 누구도 무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남녀는 누구나 읽고 쓰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제도 모든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헨리 폴즈(Henry Faulds, 1843-1930)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료 사절로 1874년부터 1886년까지 일본에 체류했는데, 시각 장애자를 위한 교육 정비를 지원했다. “일본에 있을 때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매일 교류하고 있었는데, 읽기 쓰기가 안 되는 사람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다. 체류 첫째 일인데, 모든 사람이 최소한 초등 교육은 받은 것에 대단히 감탄했다. 미국 영사 반 부렌 장군도 가난한 농민조차도 대부분 읽고 쓰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내 제한된 경험으로 판단해 본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위에 인용한 에드워드 모스는 1877년부터 1883년까지 메이지 정부에 고용되어 있었는데, 도쿄에서 책이 현관에서 다른 집 현관까지 순회 도서관처럼 운반되고 유통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큰 보따리를 지고 있는 사람을 거리에서 자주 본다. 이 보따리는 파란색 천에 싸여 있는데 아코디언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큰 책장, 사실상 순회 도서관이다. 책은 어느 곳이나 운반된다. 그리고 일본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점 점원은 어느 집이나 가서 새 책을 놓아 두고 전의 책을 회수해 돌아간다.”

읽기 쓰기에 관한 이 증언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봐 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 시대는 메이지(明治)다. 메이지 초년의 자료를 통해 에도 시대 말의 상황을 추찰해보도록 한다.

VI. 메이지 이후의 읽기 쓰기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1872년 (메이지 5년), ‘학제(學制)’가 공포되어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읽기 쓰기에 관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먼저 읽기 쓰기와 교육에 관한 보고, 회상 등을 보기로 한다.

1. 학교가 시작되었다

메이지 초년의 읽기 쓰기 상황에 대해, 위에서 본 이와쿠니의 보고서에서는 무사의 읽기 쓰기

능력에 이어 민중의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농민, 상인, 어부 중 불편없이 가나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천 명 중 한 명도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민중은 0.1 % 이하였다.

일본의 ‘공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혼다 세이로쿠(本多静六, 1866-1852)는 어린 시절을 회상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⁴⁴⁾. “메이지 5년 8월 학제가 공포되어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8살 무렵이었다. 학교 건물은 마을에 있는 고후쿠사(幸福寺). 교실은 대웅전인데, 불단 앞 마루에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고 우리는 얇은 방석 위에 앉았다. 습자 시간에도 우리는 얼굴에 서로 먹물칠을 하고, 불단 뒤에서 귀신놀이를 하며 놀기만 했다.” 학교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문자 학습조차 잘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를 볼 수 있다. 에도 시대의 서당과 거의 변한 데가 없는 것 같다.

1901년부터 1903년까지 문부대신이었던 기쿠치 다이로쿠(菊池大麓, 1855-1917)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일반 아이들도 변변한 시설도 없는 평범한 학교에서 4년간 교육을 받으면, 가나로 쓰여진 것을 읽을 수 있게 되며, 말하고 싶은 간단한 내용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대부분은 한자가 뒤섞여 있어서, 한자를 겨우 500자만 배운 아이들은 일반 인쇄물을 읽을 수 없다. 상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아직 적다. 때문에 일반인이 읽는 신문이나 기타 인쇄물의 한자 옆에는 독음이 작은 글씨로 붙어 있다.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에서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금방 로마자를 사용하게 될 일도 없을 것이지만, 한자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지역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읽기 쓰기 능력

메이지 시대에는⁴⁵⁾ 읽기 쓰기에 관한 조사가 여러 번 실시되었다. 그 중 하나는 ‘문부성 연보’에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몇 개 현의 자서율(自署率) 조사 내용이다⁴⁶⁾. 그 리스트가 <표 3>이다.

44) 회상은 현대 사이타마 현 구키시(久喜市)의 초등학교 상황.

45) 메이지 시대는 1868년부터 1912년까지.

46) 『문부성연보(文部省年報)』는 1873년(메이지 6년)의 문부행정 보고문이 1875년에 출판되었고, 이후 1914년까지 간행되었다.

〈표 3〉 자서울 조사(『문부성 연보』에 의함)

현(縣)명	연차	남성(%)	여성(%)	전체(%)	대상
시가현	1877년	89.2	39.3	64.1	6세 이상
야마구치현	1879년	55.0	16.5	36.3	전 인구
군마현	1880년	79.1	23.4	52.0	6세 이상
아오모리현	1881년	37.4	2.7	19.9	6세 이상
가고시마현	1884년	33.4	4.0	18.3	6세 이상
오카야마현	1887년	65.6	42.1	54.4	6세 이상

〈표 4〉 나가노현 기타아즈미(北安曇)군 토키와(常盤)촌 조사 결과(1881년)

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구별표(남성만)	(인)	(%)	분류(a)(%)		분류b(%)	
‘백치’	0	0.0	글을 모름	35.3		
숫자와 제 이름을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자	312	35.3				
제 이름과 마을 명을 쓸 수 있는 자	363	41.1	제 이름 쓰기 가능a	41.1	제 이름 쓰기 가능b	55.6
출납 장부 기록이 가능한 자	128	14.5	실용적 식자층a	23.6	실용적 식자층b	9.1
편지나 증서 등을 쓸 수 있는 자	39	4.4				
공용문 작성 시 문제가 없는 자	18	2.0				
훈령 등을 읽을 수 있는 자	8	0.9				
훈령과 신문 논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	15	1.7				
합계	883					

자서울 조사보다 더 상세한 조사 결과도 남아 있다. 그 중 하나는 나가노 현 토키와(常盤)에서 행해진 조사 결과인데, 읽기 쓰기 능력이 8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대상이 남성만으로 한정되었으며, 조사 인원 수는 900명 이하다 〈표 4〉.

어느 정도까지를 ‘실용적인 읽기 쓰기 능력⁴⁷⁾’이라고 볼 것인가, 즉 〈표 4〉의 ‘일상적 출납 장부’를 포함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a 와 b의 관점이 표 속에 나타나고 있다.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실용적인 읽기 쓰기 능력이 23.6 %이며,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9.1 %가 된다. 기껏해야 남성 4명 중 1명 정도 외에는 실용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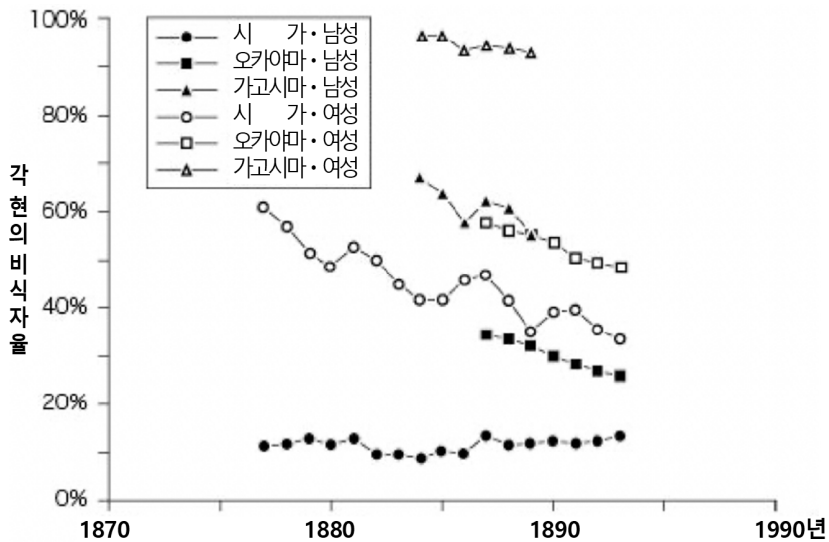
조사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 장에서 소개한 루빈자 씨의 방법을 따라 해 보기로 한다. 즉,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 = 문맹율을 보기로 한다 〈표 5〉.

47) Functional literacy. ‘기능적’이라는 번역도 있다.

〈표 5〉 문맹률(『문부성 연보』등에 의함)

현(縣)명	연차	남성(%)	여성(%)	전체(%)	대상
시가현	1877년	10.8	60.7	35.9	6세 이상
야마구치현 구가군(玖珂郡)	1879년	45.0	83.5	63.7	전 인구
군마현	1880년	20.9	76.6	48.0	6세 이상
나가노현 도키와촌(常盤村)	1881년	35.3	-	-	남성만
아오모리현	1881년	62.6	97.3	80.1	6세 이상
가고시마현	1884년	66.6	96.0	81.7	6세 이상
오카야마현	1887년	34.4	58.0	45.6	6세 이상

문맹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만든 그래프가 [그림 15]다.



[그림 15] 시가, 오카야마, 가고시마 3 현의 문맹률 추이(남녀별)
(『문부성 연보』에 의함)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첫째,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메이지 시대 초기로 갈수록 이 현상은 현저했다. 아오모리(靑森)와 가고시마(鹿兒島)는 자서율이 낮는데, 특히 여성의 자서율이 두 현 모두 5% 이하다. 두 현의 남성 자서율은 여성에 비해 높으나, 그래도 시가(滋賀)와 오카야마(岡山)의 여

성보다는 낮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그 지역의 산업 종류의 차이, 그리고 에도 시대부터 내려 오는 ‘유산’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남녀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자서율이 높은 현일수록 적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어느 현이나 문맹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다소 상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메이지 시대 중기에 자서율이 높아진다. 이것은 근대 학교 교육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 학교는 1872년 ‘학제(學制)’가 공포된 후, 설립이 장려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불과 5년 사이에 25,000교 이상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취학율이 90% 이상이 되기까지는 3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 늘 출석하는 것이 당연시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문맹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에 본 나가노현 도키와의 자료는 이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이나,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조사 인원이 9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었다.

3. 와카야마현 자료에서

좋은 자료가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 있다. 와카야마현 북부 기미노(紀美野町)에 노가미 하치만궁(野上八幡宮)이라는 오래된 신사가 있다. 이곳에 읽기 쓰기 능력 조사 자료 두 개가 보관 되어 있다⁴⁸⁾. 1874년 6월이라는 날짜가 붙어 있는데, 하치만궁 주변 마을의 읽기 쓰기 능력을 조사한 결과를 기록한 자료다. ‘대구(大區)’, ‘소구(小區)’ 라는 것은 당시의 행정구역인데, ‘호장(戶長)⁴⁹⁾’과 ‘부호장(副戶長)’이 실시한 이 조사 결과는, ‘와카야마현 곤레이(權令) 고야마 구니키요(神山郡兼, 1829-1909)’에게 보고된 조사서의 복사본인 것 같다⁵⁰⁾. 하지만 이 시절의 현의 문서는 화재와 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 전체의 상황과 도시의 상황, 조사 방법과 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8) 『總人員之内文通出來ル者姓名自書スル者文字ヲ知ラサル者取調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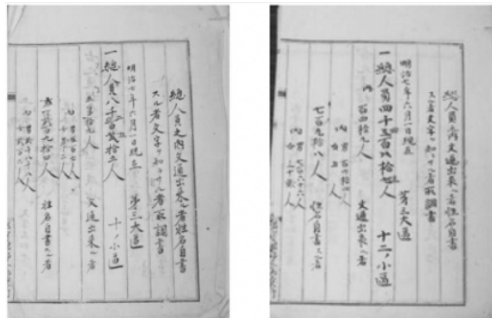
49) 호장(戶長)은 메이지 시대 전기 지방 행정구의 책임자.

50) 곤레이(權令)는 현 행정의 장관. 겐레이(縣令)도 장관이지만 곤레이보다 신분이 높다.

〈표 6〉 와카야마 현 제 3 대구(大区) 10, 12 소구(小区) 식자 조사결과(1874년)

편지 왕래가 가능한 사람		698명	5.6%
	남성	651명	10.4%
	여성	47명	0.8%
성명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3092명	24.7%
	남성	2854명	45.6%
	여성	238명	3.8%
문자를 모르는 사람		8723명	69.7%
	남성	2757명	44.0%
	여성	5966명	95.4%
	6세 이하	1520명	-
총 수		14033명	-
	남성	6262명	-
	여성	6251명	-
	7세 이상 남녀	12513명	-

이에 따르면, 제 3 대구의 10 및 12 소구의 총 인구는 14,033 명, 이 중 7세 이상은 12,513 명이었다. 이 결과로 작성된 것이 〈표 16〉이다.



[그림 16] 와카야마 현제 3 대구(大区) 10, 12 소구(小区) 식자 조사결과

이 조사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을, ‘서신 가능 정도’, ‘성명 자서 정도’, ‘문맹’의 3단계로 나눠 놓았으므로 자세하게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사 대상이 1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당시 농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평균을 내면, 서신이 가능한 남성은 10%, 여성은 1% 미만, 이름을 쓸 수 있는 남성은 절반 정도, 여성은 4% 정도였다. 마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고, 남성 40% 정도, 여성 7% 이상이 서신 가능한 마을도 있었으며, 남성 80% 정도, 전체의 절반 정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마을도 있었다.

와카야마현 서남쪽의 별도 자료로 알게 된 산간부(山間部)의 조사 결과는 <표 7>이다. 남녀별 숫자는 없으나, 앞과 같은 3개의 구분 기준 하에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조사 시기도 동일하다.

<표 7> 와카야마 현 제 7 대구(大區) 9 소구(小區) 식자 조사 결과(1874년)

	후카타니무라	오오타니무라	타케노히라무라	시모카와우에무라	시모카와시타무라
편지 왕래 가능	0명	1명	1명	4명	2명
(%)	0.0	0.7	2.1	1.6	0.4
성명 스스로 쓰기	4명	0명	0명	18명	23명
(%)	4.3	0.0	0.0	7.0	4.9
쓰지 못 함	90명	135명	47명	235명	442명
(%)	95.7	99.3	97.9	91.4	94.6
총 수	94명	136명	48명	257명	467명

농촌부와 비교할 때 산간부 사람들의 읽기 쓰기 능력이 극단적으로 낮은 점은 놀랍다. 당시까지, 그들의 생활에는 문자가 거의 필요 없었던 것 같다. 아오모리와 가고시마의 문맹율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다. 문자를 몰라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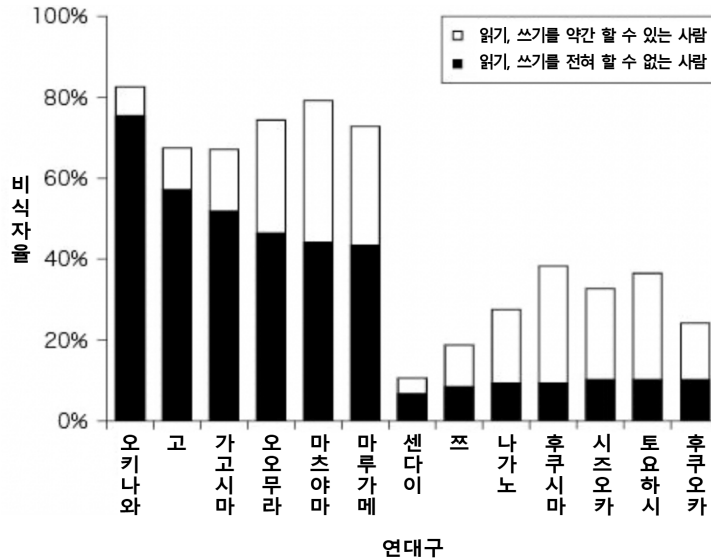
4. 군(軍)에 의한 조사

일본 육군이 1899년부터 1937년까지, 전국의 20세 남성(壯丁=장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 조사 대상은 매우 넓으며 (1899 년 419,416 명), 초등학교 졸업자 이하 사람들의 읽기 쓰기 능력에 계산 능력을 더한 조사 항목이 작성되어 있다.

시험을 친 사람들은, 우선 졸업한 학교에 따라 분류되었고, 그 학교 항목 아래에 ‘다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읽고 쓸 수 없는 사람’ 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자료의 단점은 여성이 제외된, 20살 남성만에 국한된 자료라는 점, 현 단위가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작성된 ‘연대구(聯隊區)’ 단위의 조사였다는 점에 있다. 또 어떻게 시험이 실시되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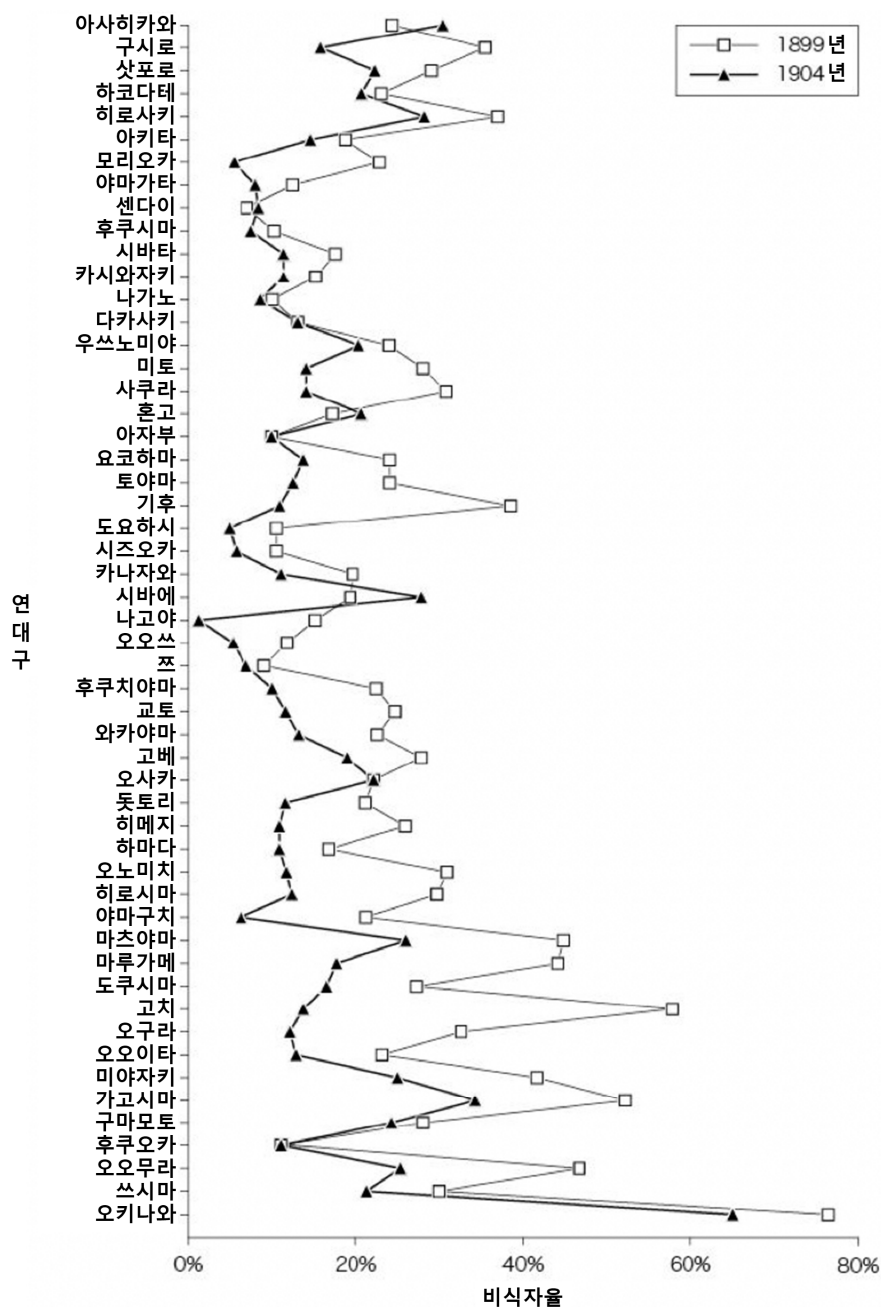
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어디에서 시험을 쳤는지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림 17] 문맹률이 높은 연대구(聯隊區)와 낮은 연대구(1899년) (1899년)
(『육군성(陸軍省) 통계 연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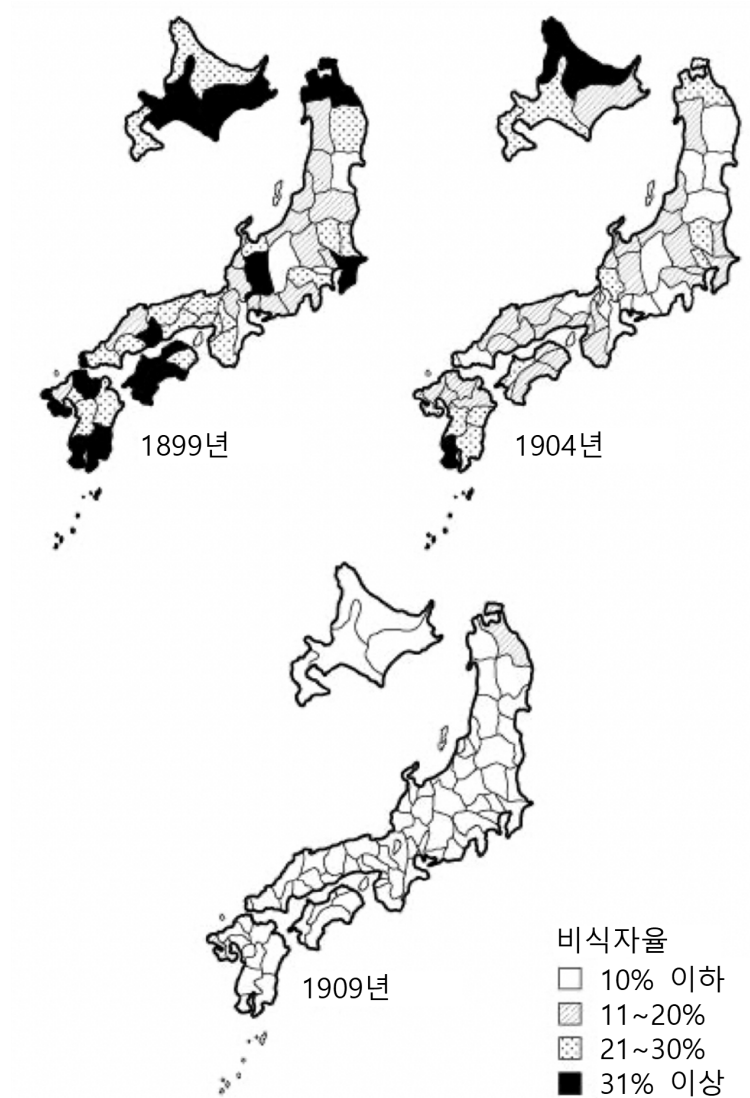
1899년의 시험 결과는, 읽기 쓰기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커다란 지역 차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 17]은 문맹률이 가장 높은 연대구와 가장 낮은 연대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그 차이가 매우 커서 오키나와의 신병 76.3%, 고치(高知)의 57.6%가 ‘완전히 읽고 쓸 수 없는 사람’ 이었다. 한편 센다이(仙台)는 7%, 쥘은 9%밖에 문맹자가 없었다.

이후 문맹률은 감소하며 컸던 지역적 차이도 줄어든다. 1899년 문맹률은 서일본에서 높았던 점이 주목된다. 문맹률이 높은 지역은 일본 열도의 말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899년부터 1904년 사이에는 지역적 차이가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맹률이 감소했으나, 반대로 아사히카와(旭川), 히로사키(弘前), 혼고(本郷), 사바에(鯖江)의 각 연대구에서는 증가했다[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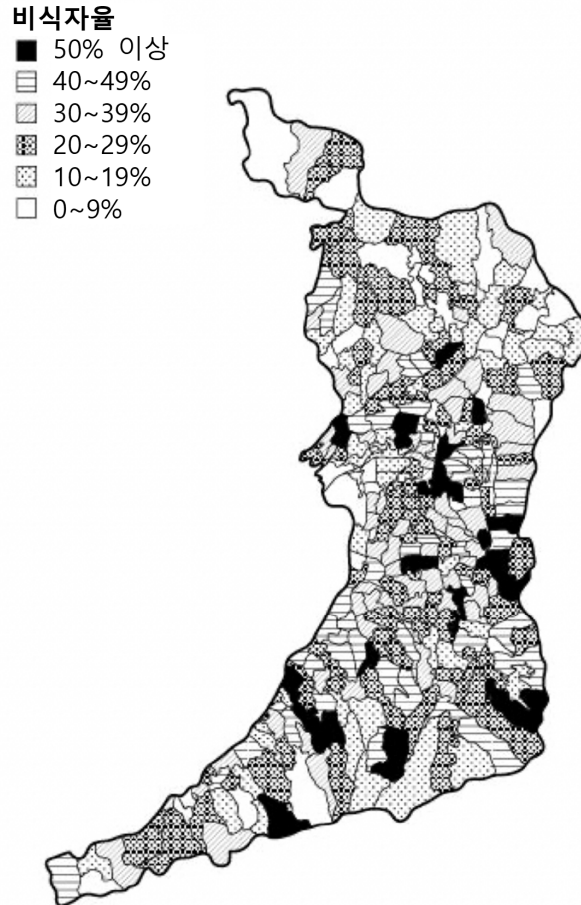
[그림 18] 연대구별 문맹률 비교. 1899년과 1904년
(『육군성(陸軍省) 통계 연보』에 의함)

1905년경, 러일 전쟁 시기의 취학율은 거의 모든 남녀가 취학하는 단계로까지 상승했다.



[그림 19] 연대구별 문맹률 감소 경향(“육군성 통계 연보”에 의함)

[그림 19]는, 신병들의 문맹률 감소 현상을 1899년, 1904년, 1909년으로 나눠 5년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1899년의 지도는 20세 남성의 문맹률 속에 지역적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0] 오사카의 마을별 문맹률(1900년)
(오사카부 내무부 제3 과 『메이지 33년도 장정 보통교육 정도 조사서』에 의함)

전술한 바와 같이 1899년의 지도에서는 일본 열도의 주변 지역 대부분에 높은 문맹율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동일본과 서일본에 큰 차이가 있고 서일본 동단의 시가(滋賀)와 미에(三重)의 경계를 따라 동해에서 태평양까지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다. 문맹률이 높은 곳은 서일본이고, 동일본은 낮다. 그러나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는 예외였다.

오사카의 문맹률 상황도 보아 두기로 한다. 오사카의 자료는 작은 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다. 이 1900년의 문맹률 분포는 [그림 20]과 같다. 마치 만화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지역마다 읽기 쓰기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맹률은 대체로 상업 지역에서는 낮고, 공업 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업 지역에서의 읽기 쓰기 능력의

필요성과 공업 지역에서의 취학 억압, 즉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보다 노동을 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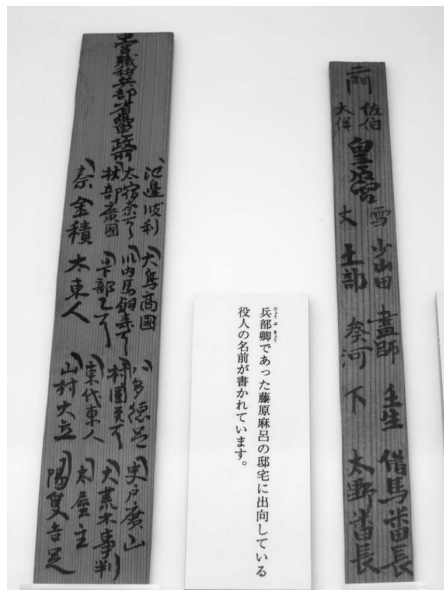
1872년의 근대 학교 설립 선언으로부터 약 30년. 1900년 당시 20세의 사람들은 학교 교육의 영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균일한 읽기 쓰기 능력'을 실현할 수는 없었다.

VII. 일본의 읽기 쓰기 능력의 전개 과정 정리

에도 시대 이후 읽기 쓰기 능력이 어떻게 보급되어 왔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통계적인 조사와 역사에 기록된 증언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대; 읽고 쓸 수 없는 귀족들

먼저 에도 시대 이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그림 21] 목간(木簡)

(Photo by ©Tomo.Yun. <http://www.yunphoto.net>)

일반 민중이 언제부터 읽기 쓰기 능력을 획득했는지는 모르나, 마을의 유력자들이 읽기 쓰기를 시작한 것은 8세기의 율령 국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당시의 수도, 나라(奈良)에 있던 귀족들은 중국을 모범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오는 보고와 정보 교환에는 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목간(木簡)을 사용하고 있었다[그림21]. 이것은 중앙 정부와 출장소에 있던 관리들이 한자로 정보를 기록했던 것이다. 수도에 있던 ‘대학寮(大学寮)’는 7세기에 설치되었다⁵¹⁾. 또 지방 관리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유사한 학교가 지방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교의 교과서인 ‘논어’와 ‘효경’에 근거한 교육 과정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앙 정부는 민중을 관리하기 위해 호적을 작성시켰다. 호적은 지방 관리와 농촌의 지도자들이 작성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8세기 초기에는 지방 유력자들에게도 읽기 쓰기 능력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불교는 경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승려는 읽기 쓰기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시 승려들이 배운 경전은 산스크리트어 등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경전은 에도시대까지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승려들이 읽기 쓰기에 사용하고 있던 언어는 중국어였다.

또 율령 국가에서는 통치하는 모든 지역과 중앙과의 문서 교환이 필요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통치가 복잡해지고, 또한 지배권이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서를 읽고 씌으로써 율령 국가의 존재를 뒷받침해야 하는 지방 관리의 수가 증가해 갔다.

그러나 승려와는 달리, 모든 귀족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귀족의 일기 등에 능력이 부족한 귀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헤이안 시대⁵²⁾ 최대의 권력자로 가장 유명한 귀족인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 1066-1027)의 이복형 미치즈나(道綱, 955-1020)는 “겨우 이름만 쓸 정도로, 1, 2도 모른다”거나 “일문불통(一文不通)”이라고 평가되고 있었다. 미치나가의 증손의 아들 다다자네(忠實, 1078-1162)도 “일문불통”이라고 되어 있다. “일문불통”은 당시의 공식 기록 문제, 즉 한문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치즈나도 다다자네도 최고위 귀족이었다. 또한 미치나가의 먼 친족 사네노리(藤原實教, 1150-1227)는 “한자를 모른다”, “글자 한 자도 쓰지 않고 그냥 붓을 들고 종이에 대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차피 관직 세습이 강화되니, 읽기 쓰기 능력이 낮아도 직무 수행은 가능했던 것 같다. 사네노리 등은 문필 이외의 능력과 태도(관현·충성)가 좋은 평가를 받아, 전체 평판은 나쁘지 않았다.

51) 大学寮은 당시의 귀족 교육기관. 기숙사가 아님.

52) 헤이안(平安) 시대는 794-1192년. 지배자가 귀족의 시대이며 수도는 교토였다.

한문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일본어를 일순간에 고대 중국의 문어(文語)로 변환해 기록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문은 현대 중국어가 아니라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이다. 한문은 지배에 대한 공식적 기록과 귀족의 일기 등의 형태로 이후 오랫동안 남게 된다. 뭐니뭐니해도 한문이야말로 정격(正格)적인 문체였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문체도 태어났다. 헤이안 시대 후반에 발명된 히라가나와 한자를 조합하고, 부분적으로는 한문의 문법을 도입하여 발달한 한자 가나 혼합 문체다. 이것이 가마쿠라 시대 이후 무사들에게 사용되면서 지배적 문체가 된다⁵³⁾.

2. 중세; 문자 속에 담긴 강한 마력

중세⁵⁴⁾ 때, 문자를 모르는 민중은, 영원히 기록해두는 힘을 가진 문자라는 것은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가둬두’는, 적을 저주하는 일도 했다. 이것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봉인해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문자는 인간 자신을 봉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무서울 정도로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근세⁵⁵⁾ 마을 대표들이 마을 문서를 집에서 보관한 것도 문자의 힘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서민들도, 농민들의 지도자쯤 되면, 자신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가타카나와 소량의 한자를 사용하여, 소송 때 사용하는 문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지만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머리를 깎아 비구니로 만들어 버리고……⁵⁶⁾”라는 문서처럼 실제로 그들의 요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소송의 장(場)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3. 17세기; 에도 시대 초기의 도시

17세기 전후 무렵, 농촌에는 높은 수준의 읽기 쓰기 능력 소유자로서 마을 행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 읽기 쓰기 능력이 마을 대표층을 넘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을 대표가 아닌 사람이 세금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고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53) 가마쿠라(鎌倉) 시대는 1192-1333년. 무사가 지배하는 시대로서 수도는 가마쿠라였다.

54) 일본 중세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36-1573년)까지.

55) 일본 근세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1568-1603년)부터 에도시대 말까지.

56) 제 4장 참조.

알려져 있다.

읽기 쓰기 교육은 두 가지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한편에 일반 민중을 위한 서예 초보를 가르치는 서당과 절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 대표의 집에서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높은 수준의 직업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마을 지배를 위한 교육은 마을 대표의 집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 밖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두 교육은 농촌의 ‘두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같은 무렵 도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도시에서는, 대도시나 소도시, 중심부, 주변부를 막론하고, 읽기 쓰기 능력은, 많지 않은 수의 지역 지도자 층을 넘어, 많은 세대주들에게 침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도시와 대도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교토의 상업 지역에서는 세대주를 넘어 그 아들의 거의 반수, 남성 종업원, 세입자들에게까지 읽기 쓰기 능력이 확대되었고, 자가 소유 층에서 그 아버지, 조카, 삼촌 혹은 큰아버지, 그리고 성인 여성에게까지 확대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향은 대도시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한편, 나가사키 같은 시골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의 범위는 훨씬 더 한정되어 있었다. 남성 세대주의 자필 서명 사용률은 교토와 같으나, 조금이라도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진 아이와 종업원의 수는 더 적었다. 도모오카(友岡)촌의 자료는, 작은 농촌에도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고 마을 행정과 상업에 종사한 지도적 인물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자료는 또 농촌 사람들이 ‘두 문화’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마을 대표들의 외부에는 여성, 장성한 자식들, 종업원 그리고 사환이 있었고, 그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자료로 판단하건대 17세기에는 읽기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였다.

4. 18세기; 더 깊이 알고 싶다

18세기에는 지방 촌락의 읽기 쓰기 능력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계층에까지 그 능력이 침투한 것은 아니었다. 변화한 것은 그들의 문화적 생활과 읽기 쓰기 능력의 질이었다. 17세기 말 이후 급속히 발달한 대도시의 문화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그 읽기 쓰기 능력을 심화시킨 것이다. 그들은 유교와 불교, 국학과 의학, 와카(和歌)와 하이쿠(俳句)와 관련된 학자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중요한 문화적 가교가 되어 갔다.

18세기 지방 지식인의 활약으로 지방 사람들은 대도시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지방에서 높은 수준의 읽기 쓰기 능력을 뽐내고 있던 사람들과 일반 농민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야기되기도 했다. 농촌의 ‘두 문화’는 읽기 쓰기 능력 분포 범위의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정점에는 마을 대표들이 있다. 그들은 부자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유교와 불교, 국학 등을 많이 배웠으며, 특히 와카와 하이쿠, 서예에 관한 기예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저변에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토지도 없는 수많은 농민들이 있었다.

5. 19세기: 읽기 쓰기 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높은 수준의 문화와 읽기 쓰기 능력을 가진 일반 민중이 도시 교외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출현한 지식인들은 정치 활동에도 참여했다. 여성 지식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집안의 장사 일을 도왔으며, 상인 지식인들은 많은 적든 그의 일보다 문화에 열심이었다.

민중의 배움과 문화라는 면에서 19세기와 18세기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서당의 융성이다. 서당은 초라한 것이었지만, 읽기 쓰기 능력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서당 취학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지리적 조건이 중요했다. 도시에 가깝거나 큰 도로와 정보 교통 수단에 가깝거나, 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농민이나 지도자층도 서당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농민들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으나, 지도자들은 농민의 불평 불만을 달래고, 서당 교육을 통해 질서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당의 취학 자료를 보면, 여성에게는 취학 기회가 적었다는 것, 시골에서는 특히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상업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꽤 높은 비율로 다니고 있었다. 시골 남성의 비율보다는 높고, 남성 상인의 비율과 대체로 같은 편이었다.

농촌에서는 단기간 서당에 다닐 뿐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넘는 능력의 침투 속도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도 농촌에 ‘두 문화’가 명확하게 잔존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대표층 이외의 사람들이 더 높은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다.

한편, 도시 근교의 마을과 상업 지역으로 나오기 쉬운 큰 도로 근처의 마을 등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투표 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 농민이 한자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나간 여성 중에는 초보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사용하여 생활을 개선하려고 지배자에게 탄원을 한 여성도 있었다. 읽기 쓰기 능력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상하다고 표명하기 위한 도구다. 이를 통해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보다 풍부한 미래와 생활 수준, 더 큰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19세기 초기 일본에는 사회를 근원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은닉되어 있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읽기 쓰기 능력이 가장 많이 보급된 곳이 에도 시대 일본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에도 시대의 읽기 쓰기 능력의 발달은 ‘학교’라는 시설과 그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출현 전에 발생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6. 메이지 이후: 근대에도 현대에도

메이지 정부가 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입학했다고 해서 읽기 쓰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20세기의 입구에 들어선 시점에서도 신병(新兵) 중에 읽기 쓰기가 전혀 불가능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문맹률이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저하의 양태는 균일하지 않았다. 에도 시대에는 여전히 지역적인 차이가 남아 있었다. 또 남녀 사이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일반 민중의 읽기 쓰기 능력의 발달은, 취학 중인가 아닌가의 여부보다 공동체의 지리적 환경—대도시 근처에 있는가 여부, 상업과 교통을 위한 도로와 하천이 있는가 여부, 배움과 문화의 전통이 있는가 여부—와 관계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상업 활동은 낮은 문맹률과 연관되어 있으며, 높은 문맹률은 공업화가 진전되는 지역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세기 초입의 일본인들은 기초적인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하여 지역차가 컸으며, 균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는, 사회의 한 구석에서 읽기 쓰기 장애로 고민하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와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의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으며, 따돌림 등에 의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다. 지금도, 읽기 쓰기 능력은 결코 100%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VIII. 에필로그 : 정보의 읽고 쓰기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에도 시대 이후 민중이 어떻게 읽고 쓰는 능력을 획득해 왔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었는가를 살펴보았다. 1985년에 유네스코 국제 성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학습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의 앞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학

습권이란, 읽고 쓰는 권리; 질문을 거듭하고 깊이 생각하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하는 권리; 자기 자신의 세계를 파악하고 역사를 쓰는 권리; 모든 교육 수단을 획득하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역량을 발달시키는 권리이다.” 그리고 학습권이란 “미래를 위해 아껴둬야 할 문화적 사치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처음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후에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권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즉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되어 있다. 그 학습권 중 제일 앞에 적혀 있는 것이 읽기 쓰기 권리다.

이 논문 시작 부분에서 읽기 쓰기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 문제, 야간 중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 다룬 바 있다. 위의 학습권 선언으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역시 읽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학습권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노력과는 별도로 한자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어 운용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당장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어야 한다.

또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선거전에서 가짜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교황이 트럼프 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크롱 후보를 중상하는 의도가 담긴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으며, 2011년 영국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도 이탈 효과에 대한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다. 일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지 건설 반대를 호소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가짜 뉴스는 2017년 텔레비전에 유포되어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정보 수단의 발달에 의해 가짜 정보가 확산되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 정도는, 1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SNS라는 구조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은 일반인들이 정보를 퍼뜨리는 쪽으로 선회하여, 그 위력이 신문을 능가할 정도가 되어 있다. 한편 정보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새로운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현대의 정보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송되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의 하나는 읽기 쓰기 능력이다. 우선 문자를 읽을 수 없으면 정보 도구를 이용할 수 없다. 동영상과 음성에 의한 정보 기술의 발달에는 눈부신 데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문자 없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생각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읽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이 없다면, 정보를 받기 전보다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성이 생기고 만다.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거짓 정보 쪽이 진짜 정보보다 20배나 더 빠르게 퍼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받은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올바르다고 믿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가하는 것이다. 금후에는 이런 논의 방식도 읽기 쓰기 능력에 포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해 온 읽기 쓰기 능력을,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이 세계를 올바른 세계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다.

※ 논문 투고일: 2023. 5. 12. ※ 논문 수정일: 2023. 8. 22. ※ 게재 확정일 : 2023. 8. 31.

〈참고문헌〉

- 青木美智男・阿久恒久(編)(1998). 幕末維新と民衆社會. 高志書院.
 新井紀子(2018). AI vs. 教科書が読めない子どもたち. 東洋經濟新報社.
 庵功雄(2016). やさしい日本語. 岩波新書.
 石川松太郎(1978). 藩校と寺子屋. 教育社歴史新書.
 石川松太郎, 寺崎昌男, 浜田陽太郎(1978). 日本教育の記録(上・中・下). 日本放送出版協會.
 梅村佳代(1991). 日本近世民衆教育史研究. 梓出版社.
 太田市(1979). 太田市史 史料編 近世2. 太田市.
 大多和雅絵(2017). 戦後夜間中學の歴史. 六花出版.
 大戸安弘, 八鍬友広(編)(2014). 識字と學びの社會史. 思文閣出版.
 加藤醇子(編)(2016). ディスレクシア入門. 日本評論社.
 かどやひでのり・あべやすし(編)(2010). 識字の社會言語學. 生活書院.
 川崎喜久男(1992). 筆子塚研究. 多賀出版.
 川田順造(2004). コトバ・言葉・ことば 文字と日本語を考える. 青土社.
 川村肇(1996). 在村知識人の儒學. 思文閣出版.
 金文京(2010). 漢文と東アジア. 岩波新書.
 木村政伸(2006). 近世地域教育史の研究. 思文閣出版.
 黒田弘子(1995). ミミヲキリハナヲソギ. 吉川弘文館.
 今田洋三(2009). 江戸の本屋さん. 平凡社.
 斎藤希史(2014). 漢字世界の地平. 新潮社.
 品川裕香(2003). 怠けてなんかない! ディスレクシア—読む書く記憶するのが困難なLDの子どもたち. 岩崎書店.
 柴田純(2000). 江戸武士の日常生活. 講談社選書.
 J.E.スタッキー(1995). 読み書き能力のイデオロギーをあばく. 勁草書房.
 高井浩(1991). 天保期・少年少女の教養形成過程の研究. 河出書房新社.
 高島俊男(2001). 漢字と日本人. 文春新書.
 カルロ.M.チボラ(1983). 読み書きの社會史. 御茶の水書房.
 辻本雅史(1999). 「學び」の復権. 角川書店.
 長野県教育史刊行會(1979). 長野県教育史 第4巻 教育課程編1. 長野県教育史刊行會.
 H.ノーマン(1950). 忘れられた思想家—安藤昌益のこと(上・下). 岩波新書.
 深谷昌志(1969). 學歷主義の系譜. 黎明書房.
 松崎運之助(2002). 夜間中學があります. かもがわ出版.
 松塚俊三・八鍬友広(編)(2010). 識字と讀書. 昭和堂.
 文部省(1988). 復刻版日本教育史資料. 鳳出版.
 八鍬友広(2001). 近世民衆の教育と政治参加. 校倉書房.
 八鍬友広(2017). 闘いを記憶する百姓たち. 吉川弘文館.
 柳井久雄(2007). 改訂版老農船津傳次平. 上毛新聞社.
 山根実紀(2017). オモニがうたう竹田の子守唄. インパクト出版會.
 R.ルビンシジャー(2008). 日本人のリテラシー 1600-1900年. 柏書房.
 R.ルビンシジャー(1982). 私塾. サイマル出版.

若尾政希(2004). 安藤昌益からみえる日本近世. 東京大學出版會

若尾政希(編)(2015). 書籍文化とその基底. 平凡社.

渡部學(1969). 近世朝鮮教育史研究. 雄山閣.

渡辺尚志(2009). 百姓たちの江戸時代. ちくまプリマー新書.

[그림1] 신자 명단(宗門人別帳) 個人藏.

[그림2] 와타나베 가산(渡邊崙山)「一掃百態圖」 마을 서당(手習塾) 田原市博物館藏.

[그림3] 筆子塚 木村政伸氏提供.

[그림4] 源頼朝의 가오(花押)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5] 徳川家康의 가오(花押)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6] 이마보리 마을의 가오와 라크오(略押 1639년) 東近江市今堀町 °滋賀大学経済学部附属史料館藏.

[그림7] 南蛮起請文의 서명(1635년) 六角町文書. 公益社団法人北観音山保存会藏.

[그림8] 南蛮起請文의 가오와 붓대오장(筆軸印 1635년) 六角町文書. 公益社団法人北観音山保存会藏.

[그림9] 도모오가 마을 南蛮起請文의 가오와 라크오(1635년) 長岡京市教育委員会藏.

[그림10] 투표(1856 년) 金子俊郎氏藏 °長岡市立中央図書館文書資料室寄託.

[그림11] 농업 전서(農業全書) 国立国会図書館藏.

[그림12] 서점 점원의 그림 Edward Sylvester Morse, "Japan Day by Day", Houghton Mifflin Harcourt, Boston, 1917.

[그림13] 하츠의 구상서(口上書) 個人藏. 太田市教育委員会提供.

[그림14] 쇼초(正長) 민중 봉기(土一揆)의 비문(碑文) 清水書院提供.

[그림15] 시가, 오카야마, 가고시마 3 현의 비 식자율 추이(남녀별) (“문부성 연부”에 의함)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16] 와카야마 현 재 3 대구(大区) 10, 12 소구(小区) 식자 조사결과 筆者撮影.

[그림17] 비 식자율(非識字率)이 높은 연대구(聯隊區)와 낮은 연대구(1899 년) (“육군성(陸軍省) 통계 연보”에 의함)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18] 연대구(聯隊區) 마다 비 식자율(非識字率) 비교, 1899 년과 1904 년 (“육군성(陸軍省) 통계 연보”에 의함)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19] 연대구(聯隊區) 별 비 식자율(非識字率) 감오 경향 (“육군성(陸軍省) 통계 연보”에 의함)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20] 오사카의 마을 마다 비 식자율(非識字率)(1900 년)(오사카 후 내무부 재 3 과 “메이지 33 년도 장정 보통교육정도 조사서”에 의함) Richard Rubinger, "Popular Literacy in Early Modern Japan", Hawaii University Press, 2007.

[그림21] 목간(木簡) Photo by ©Tomo.Yun <http://www.yunphoto.net>

〈Abstract〉

A Summary of Japanese Literacy History

Kawamura, Hajime¹

The history of reading and writing in Japan began around the 5th century, when *Kanji* were introduced from China. The habit of reading and writing hardly spread among the busy people. Around the 10th century in the *Heian* period, *Hiragana* and *Katakana*, which were based on *Kanji* characters, began to be used, but it seems that only a minority of the people used them. On the other hand, in Japan, where imperial examinations were not adopted, opportunities for learning Chinese writing were limited, and under a strong class system, even aristocrats who were illiterate were able to succeed in life.

After the *Sengoku* period ended and the *Edo shogunate* was established in the 17th century, the adoption of documented control made it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local leaders to master the Chinese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letters spread among the people in areas where commercial activities were flourishing. Over the next century or so, the cultural level of the local leaders rose as they learned to read books using the characters they had learned and engaged i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t the end of the *Edo* period in the 19th century, it spread to the people around them, including women. The place for that learning is *Tenarai-juku*. However, the level of their literacy was quite low, and outside of the cities, most people were only able to write their own names, less than half of the population could read and write letters, and in some mountain villages literacy was close to zero. In many cases, women were not given opportunities to learn letter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Meiji* period began, school education began to show results, but literacy levels differed greatly depending on the region. Literacy was lower in industrial areas than in commercial areas, partly because children were used as laborers, and the gender difference that has existed since the *Edo* period remained.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fter the war, there were almost no people who could not read or write even a single character.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read and write Japanese, it is essential to remember over 2,000 *kanji* characters and two types of characters, but even most prime ministers are questioned about their ability to read and write of Chinese characters. In addition, there is a large gap in the ability to understand what is read and written, and this is a problem that plagues modern Japan as an academic ability problem. Furthermore, the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information is also rapidly being sought, and the problem of reading and writing is also a modern problem.

Key Words : Literacy, Illiteracy, Terakoya, Kao, Village election ballots

1. Professor, Dokkyo University, Japan. hkawamura0@gmail.com